

2012-25

기본연구

제주 이전기업의 파급효과 분석 및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한승철 · 강기춘

Pending issue research

Basic research

Commissioned research

Policy research

Jeju Development Institute 제주발전연구원

기본연구 2012-25

제주 이전기업의 파급효과 분석 및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한 승 철 · 강 기 춘

발 간 사

기업유치는 고용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조세기반 강화, 자산가치의 증식, 지역경제의 안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낙후된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에는 그동안 다음(Daum), NXC 등 몇몇 기업들이 이전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기업유치가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싶습니다.

따라서 제주에 정착한 기업들이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해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제주에 이전한 기업들이 이전 후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냈는지를 분석하고, 기업유치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도되었습니다.

제주에 이전해온 기업의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소비지출, 영업지출, 투자계획서에 나타난 건설비용을 산업연관분석표에 따라 재분류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가 확보된 8개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까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생산유발 1437억 원, 부가가치 유발 813억 원, 고용유발 1868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기업 1개사로 평균해보면, 생산유발효과 179억 원, 부가가치 유발 102억 원, 고용유발 233명인 셈입니다.

또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입지여건 만족도에서 인력수급, 원료조달, 대중교통 환경, 물류환경 등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 인력수급 제도적 정비, 판로확보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피부에 와 닿는 기업사랑 문화 조성 등의 기업환경 개선과 함께 기업유치 전략적 마스터플랜 수립, 인센티브 확대, 산업단지 확대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업유치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 중에 매우 중요한 사안을 재확인하는데 유용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 연구보고서가 제주의 기업유치 전략수립과 기업유치 활동 활성화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
원 장 양 영 오

연구요약

Key Word : 이전기업, 파급효과, 의견조사,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불편해소

I.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 산업구조가 단순한 제주지역에서 기업유치는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위해 절대 필요한 사안임
 - 외부기업 유치는 낙후된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해 고용창출, 산업의 경쟁력 강화, 조세기반의 확충, 지역부(富)의 보존, 지역경제의 안정, 지역자산가치의 증식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동안 기업유치 성과로 미흡하나마 다음(Daum) 등 몇몇 기업들이 제주로 이전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음
 - 이전기업이란 수도권 및 수도권 이외의 기업이 본사나 지사를 제주로 이전하여 생산 및 부가가치, 고용효과를 내고 있는 기업을 의미함
 - 그동안 이들 이전기업들이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지역경제에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도 없었음
- 2011년 12월 말 현재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총 48개 기업이 도외지역에서 제주로 이전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이들 이전기업들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얼마이고, 이들 파급효과 증대를 위해 어떻게 기업유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 이전기업들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전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이전기업들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II. 연구 내용

1. 이전기업 고용 및 매출액 현황

- 이전기업이란 수도권 및 수도권 이외의 기업이 본사나 지사를 제주로 이전하여 생산 및 부가가치, 고용효과를 내고 있는 기업을 의미함

○ 이전기업의 업종, 고용 및 고용 계획 및 자본금과 매출액 내용은 <표 1>과 같음

<표 1> 이전기업 업종, 고용 현황

	기업명	업 종	자본금	고용계획/고용인원
이전기업	(주)EMLSI	반도체 설계 및 개발	11억 원	48(49)
	보타메디 (중전:라이브캠)	간기능 개선음료	30억 원	23(26)
	키멘슨전자(주)	음향기기 제조	1억 원	143(68)
	(주)NXC	(주)넥슨 지주회사	21억 원	39(48)
	(주)한국BMI	의약품 제조	25억 원	66(43)
	(주)PNI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1억 원	34(29)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인터넷 미디어 등	64억 원	350(320)
건축중	(주)미락	육류가공업	-	45(7)
	(주)이스트소프트	소프트웨어 개발	25억 원	50(-)
	(주)온코퍼레이션	도소매 수출업	20억 원	56(-)
	아인스S&C	소프트웨어 개발	2억 원	32(-)
	(주)모뉴엘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637억 원	227(-)
	(주)우성진공	기계펌프 압축기제조	98억 원	48(-)
착공예정	(주)선광 LTI	낙뢰보호장치 개발	-	40/0
과기단지 임대입주	(주)신시웨이 등 20개사	소프트웨어개발	-	20/6

○ 콜센터 이전기업의 고용 및 자본금 현황은 <표 2>와 같음

<표 2> 제주이전 콜센터 현황

기업명	업 종	자본금	소재지	고용인원	설립
(주)다음서비스	인터넷 검색	20억 원	노형동	500/415	‘07. 3
(주)JMC	콜센터	-	연동	32/22	‘09. 3
(주)넥슨네트웍스	게임유통및 서비스	5억 원	노형동	250/210	‘09. 7
TM파워(주)	인터넷회선	-	연동	105/8	‘10. 1
동부화재직영콜센터	자동차보험 매상담	-	도남동	50/42	‘10. 3
(주)KT모바일고객지원센터	콜센터	-	이도1동	180/167	‘11. 11
제주스마일콜	여행,특산품판매	-	노형	20/ -	신규설립 준비중

○ 연수원 이전기업의 고용 및 사업비 현황은 <표 3>과 같음

<표 3> 제주이전 연수원 현황

기업명	소재지	고용현황(명)		투자액 (억 원)	매출액 ('11)	유치 시기
		계획	고용			
새마을금고 연수원	소길리	80	79(75)	303	연 31천명	2007
농협중앙회 연수원	표선	30	-	350	연 50천명	2009
비알 너교육 연수원	어음리	100	-	650	연 40천명	2009
방송대학교 연수원	김녕리	미정	-	62	연 30천명	2009
KAIST 연수원	김녕리	미정	-	60	-	2009
(주)블랙약크	색달동	미정	-	200	-	2012
충북교육청	곽지리	미정	-	97	-	2012

2. 제주지역 이전기업 파급효과 분석

- 본 분석결과는 제주에 이전 후 손익계산서가 명확히 나올 수 있는 이전기업 8개사를 대상으로, 2011년까지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쳤는지를 분석한 것으로 첫째 임금소비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둘째 영업활동비용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셋째 공장 및 사무실 건설 등에 투자한 건설비용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첫째, 임금 소비지출(급여의 50%를 지출한 시나리오 1)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406억 원, 부가가치유발 234억 원, 고용유발 608명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둘째, 영업비용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368억 원, 부가가치유발 248억 원, 고용유발 364명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셋째, 건설비용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663억 원, 부가가치유발 331억 원, 고용유발 896명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4> 제주 이전기업 8개사가 2011년까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총합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소비지출	시나리오1	406억 원	234억 원	608명
	시나리오2	571억 원	324억 원	848명
영업활동		368억 원	248억 원	364명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건설		663억 원	331억 원	896명
전체	시나리오1	1,437억 원	813억 원	1,868명
	시나리오2	1,602억 원	903억 원	2,108명
기업 1개사 당	시나리오1	179억 원	102억 원	233명
	시나리오2	200억 원	113억 원	263명

※ 본 연구에서 소비지출 파급효과 분석결과중 시나리오 1은 급여의 50%를 소비지출했다고 전제하고 분석한 것이고, 시나리오 2는 급여의 70%를 소비지출했다고 전제하고 분석한 것임

- 종합적으로 기업유치에 따라 분석대상 8개사가 2011년까지 직원임금 소비지출, 영업비용지출, 건설투자 증대에 따른 전체적인 효과(시나리오1)는 총생산유발효과 1,437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12억 원, 고용유발효과 1,868명임
 - 시나리오 2의 경우, 총생산유발효과 1,602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903억 원, 고용유발효과 2,108명임
- 기업 1개사당 평균 지역경제 파급효과(시나리오 1)는 생산유발효과 17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2억 원, 고용 233명인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 2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2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13억 원, 고용 263명인 것으로 나타남

3. 제주 이전기업 의견조사 결과와 시사점

- 첫째, 입지여건 만족도에서 인력수급, 원료조달, 대중교통환경, 물류환경 등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단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됨
- 행정상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은 고용비용 지원, 물류시설유통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확대, 정책자금 용도제한 완화, 환경관련 규제 완화 등을 꼽을 수 있음
 - 특히 고급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발굴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풀이됨

- 직원만족도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타 지역 왕래에 따른 항공료부담 및 버스 등 대중교통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나 항공료 부담 해소 대책 및 대중교통 불편해소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됨
- 둘째, 기업을 이전할 때 의료, 문화, 쇼핑, 교통 등 인프라 부족을 가장 많이 고민했고, 제주이전을 결정하게 된 중요 이유로 조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꼽고 있어, 제주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및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풀이됨
- 공장건설이나 사업장 확장 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관련 규제 완화, 입지관련 제도 완화, 생산인프라 확대, 계획단지이전 보조금 지원, 벤처집적시설·아파트형 공장 구축 운영 및 업종별 특화단지 조성 등 행정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하기 좋은 제주’가 되기 위해 제주자치도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전문인력 양성, 행정절차 및 규제완화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기업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각종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중개기능 강화, 기술 및 연구개발지원 및 자금조달 지원, 직원 교육훈련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Ⅲ. 이전기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

1. 이전기업의 활성화 측면

1) 애로사항 청취 후 맞춤형 지원 필요

- 이전기업의 종업원, 자본, 핵심 업무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기업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안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을 가지고 있음
- 콜센터의 경우 20대에서 40대까지의 여성인력 250명이 근무하고 있어 이들 여성인력들의 애로사항은 매우 특수한 것임
 - 특히 육아 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사내 어린이집 설립에 지원을 해주는 식의 노력이 필요함

2) 인력 수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 이전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제주지역에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확보기반 조성이 시급함

- 지역의 대학 및 폴리텍대학, 지역 테크노파크, 기술혁신센터 등의 관련기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투입 가능한 기술 인력에 필요한 기초교육 필요
- 대학과 기업체간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취업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며, 선진국형 도제(徒弟)제도의 본격 도입 및 실시
 - 대학과 기업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 임원진이 직접 교육하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하고, 기업에 지원되는 교육훈련비를 활용하여 지역 내 대학생에게 장학금지원 및 졸업 후 채용 등 동기유발 필요
- 행정은 지역 내 대학 당국자간 협의체 구성 및 역할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인력공급시스템 구축 필요

3) 판로 확보 지원정책 구사

- 섬이라는 특성상 물류비가 과다하게 드는 물류환경을 극복하고, 소비처에 떨어진 기업의 마케팅 측면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홍보활동 및 판매촉진 강화 필요
- 이전기업 제품의 전국시장으로의 확대를 위한 유통망 구축 및 판로개척을 지원함

4)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R&D 사업비 제공 방안 강구

- 지역별, 업종별, 산업별로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주지역 중소기업간 경제현안에 대한 대화와 정보교류의 채널을 확보 필요. 또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위기극복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바이어의 숙소문제 해결 및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바이어 하우스 운영 필요
 -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Seoul Partners House) 벤치마킹
 -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바이어 접견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자 제주를 찾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공간화
 -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주상공회의소 등의 위탁운영 검토
- 이전기업들이 R&D사업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필요

5)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 기업들의 산업단지 입주시, 공장 증설, 사업장 주소 이전 등 다양한 행정절차가 이뤄지는데, 이에 따른 절차 및 규제 때문에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각종 규제의 완화 검토

6) 이전기업 직원들의 불편 해소

- 직원들의 주거문제에서부터 육아, 문화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 항공료 부담,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대중교통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구사 필요
- 정기적으로 이전기업 및 직원들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개선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7) 피부에 와 닿는 기업사랑 문화 조성

- 기업이 지역에 있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인식아래 기업인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풍토 조성 필요
- 기업하기 좋은 사회적 정서 유도 및 도민인식 전환 필요

2. 기업유치 활성화 측면

1) 기업유치 전략적 마스터플랜 수립

- 기업유치 비전과 목표,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
- 투자유치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유치활동기간 설정, 기업물색, 기업접촉, 기업유치활동 등 과정별 매뉴얼 구사
- 제주특별자치도 국(局) 단위 기업유치 활동 전개
- 민간참여 기업유치 세일즈팀 구성
 -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하여 투자 및 기업유치 대리자 육성 및 유치 실적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금제 시행 필요

2) 전략·선도·특화 업종 기업 유치 타깃 필요

- 2012년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 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고시를 재개정하여 현재 전략·선도·특화 업종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전략·선도·특화 업종을 유치할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2% 범위에서 추가 인센티브
- 제주지역에 적합한 업종 및 전략·선도·특화업종 기업체 탐색하여 유치 전개 필요
 - 지역전략산업 (2개분야 43종) : 바이오산업, IT산업
 - 지역선도산업(3개분야) : 풍력서비스, 차세대식품융합, MICE산업
 - 특화업종(2개분야 11종) : 식료품제조업, 기초의약품질 및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3)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 검토

- 제주 이전기업들이 보조금 지원 및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이전 결정을 하게 됐으나, 현재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수도권과 지근거리에 있는 강원도나 충청권이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임
- 비수도권 기업이 제주에 이전하는 것도 기업으로서는 특단의 결정인 만큼, 특별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구 필요함

4) 산업단지 확대 시급

- 제주지역의 경우 산업단지는 국가지정 1개소, 지방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3개소가 전부인 실정임
- 현재 분양중인 용암해수산업단지의 경우 19만5천㎡로 규모가 작아 주변 토지 매입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여 용암해수를 활용한 식품, 화장품, 기능성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용지규모 등이 구미에 맞게 입주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용암해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타 지역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세제혜택 제공 검토 필요
- 산업단지 조성이 최소 2~3년은 소요되는 만큼 추가 단지조성계획을 검토 해나가야 하고, 장기적으로 적정규모의 산업단지조성계획 마련 필요
- 기존 공급자 중심 산업단지 지정 개발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해야 함, 다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과 주거 생산, 연구, 정보, 업무, 유통기능까지 겸비한 복합적 혁신공간으로 산업입지 수급 다양화를 모색해야 함

5) 아파트형 공장 건립

- 기업이 한꺼번에 타시도로 이전하는 것은 위험(risk)이 매우 커서 단계적 이전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함
- 단계적 이전을 위해서는 벤처공장, 아파트형공장(벤처공장, R&D연구소, 지식산업센터)를 세워 입주를 유도
- 경기도 부천 등에 시설된 아파트형 공장 벤치마킹 필요

목 차

I.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1
제3절 연구 내용	2
제4절 기대효과	2
II. 현황 분석	3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현황	3
제2절 제주 이전기업 현황	14
제3절 기업이전 정책	18
III. 제주 이전기업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32
제1절 파급효과 분석	32
제2절 제주 이전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36
IV. 제주 이전기업 의견조사	61
제1절 선행 조사 사례	61
제2절 제주 이전기업 의견조사	61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78
제1절 분석 및 조사 요약	78
제2절 이전기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	80

참 고 문 헌	87
부 록	88
ABSTARACT	119

표 목 차

〈표 II-1〉 지역내총생산 및 증감률(2005년 대비 2010년)	3
〈표 II-2〉 지역내총생산 지역별 비중	4
〈표 II-3〉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추이	5
〈표 II-4〉 지역별 1인당 지역총소득(당해년가격) 및 증감률	5
〈표 II-5〉 산업별 비중(제주)	7
〈표 II-6〉 산업별 성장률(제주)	8
〈표 II-7〉 사업체 수 및 증감률	9
〈표 II-8〉 종사자 수 및 증감률	9
〈표 II-9〉 제주지역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수	10
〈표 II-10〉 제주지역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종사자 수	11
〈표 II-11〉 이전 완료 기업	14
〈표 II-12〉 건축중인 기업 현황	15
〈표 II-13〉 수도권 이전기업 및 비수도권 이전기업현황	15
〈표 II-14〉 제주 이전기업 소재지 현황	15
〈표 II-15〉 이전기업 업종, 고용, 매출액 현황	16
〈표 II-16〉 제주이전 콜센터 현황	16
〈표 II-17〉 제주이전 연수원 현황	17
〈표 II-18〉 제주 이전기업 현황 총괄	17
〈표 II-19〉 국세에 대한 세제혜택 내용	20
〈표 II-20〉 지방세 세제혜택 내용	21
〈표 II-21〉 자금지원제도 내용	21
〈표 II-22〉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22
〈표 II-23〉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22
〈표 II-24〉 제주 이전기업 현황 총괄	22
〈표 II-25〉 수도권 외 이전기업 지원	23
〈표 II-26〉 정보통신산업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지원 내용	23
〈표 II-27〉 수도권 외 이전기업 지원 내용	24

〈표 III-1〉 분석모형 설정 판단	37
〈표 III-2〉 분석에 필요한 자료확보 내용	38
〈표 III-3〉 도시근로자 가계의 분기별 소비항목별 지출비율	39
〈표 III-4〉 임금지출 증대에 따른 소비항목별 지출액 추정	40
〈표 III-5〉 임금소비 지출의 산업연관표상 분류	41
〈표 III-6〉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용 지출액	42
〈표 III-7〉 영업비용 지출액의 산업연관표상 분류	43
〈표 III-8〉 생산유발 효과	48
〈표 III-9〉 부가가치유발 효과	49
〈표 III-10〉 고용유발 효과	50
〈표 III-11〉 생산유발-영업비용	51
〈표 III-12〉 부가가치유발 효과	53
〈표 III-13〉 고용유발 효과	54
〈표 III-14〉 생산유발 효과	55
〈표 III-15〉 부가가치유발 효과	56
〈표 III-16〉 고용유발 효과	58
〈표 III-17〉 제주 이전기업 8개사가 2011년까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총합	60
〈표 IV-1〉 인구통계적 특성	62
〈표 IV-2〉 사업성과의 전체적 변화	62
〈표 IV-3〉 판매시장 주요 지역	63
〈표 IV-4〉 제품판매 어려움 주된 이유	63
〈표 IV-5〉 인력수급 어려움의 원인	64
〈표 IV-6〉 제품 원가상의 어려움 원인	64
〈표 IV-7〉 경쟁력 증가를 위한 중요부분	65
〈표 IV-8〉 제주 이전 이유	65
〈표 IV-9〉 입지여건 만족도	66
〈표 IV-10〉 입지여건 만족도 평균	67
〈표 IV-11〉 기업경영의 중요부분	67
〈표 IV-12〉 제주 이전결정 전 고민 사항	68
〈표 IV-13〉 타시도 비교 약점사항	69

〈표 IV-14〉 행정상 우선적 지원 사항	69
〈표 IV-15〉 제품판매 확대 위한 기관 우선적 검토사항	70
〈표 IV-16〉 안정적 인력수급 위한 기관 우선적 지원사항	70
〈표 IV-17〉 자금조달 위한 우선적 지원사항	71
〈표 IV-18〉 공장건설 및 사업장 확장 시 문제관련, 우선적 지원사항	71
〈표 IV-19〉 기업하기 좋은 제주되기 위한 기관 우선적 지원사항	72
〈표 IV-20〉 인구통계적 특성	73
〈표 IV-21〉 종사업체의 업종	74
〈표 IV-22〉 제주 근무연수	74
〈표 IV-23〉 제주이전 전 고민사항	75
〈표 IV-24〉 제주생활의 어려움	75
〈표 IV-25〉 제주생활의 만족사항	76
〈표 V-1〉 제주 이전기업 8개사가 2011년까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총합	78
〈표 V-2〉 전국 및 제주지역 산업단지 현황	85

그림 목 차

〈그림 II-1〉 산업별 비중 추이(제주)	6
〈그림 II-2〉 산업별 성장률 추이(제주)	8
〈그림 III-1〉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경로	36
〈그림 III-2〉 파급효과 분석 경로	37
〈그림 III-3〉 두 지역 지역간산업연관표와 지역간 투입계수표	45
〈그림 III-4〉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이스트소프트건축현장	59
〈그림 III-5〉 한라수목원 입구 (주)NXC 공사현장	59

I.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산업구조가 단순한 제주지역에서 기업유치는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위해 절대 필요한 사안임
 - 외부기업 유치는 낙후된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해 고용창출, 산업의 경쟁력 강화, 조세기반의 확충, 지역부(富)의 보존, 지역경제의 안정, 지역자산가치의 증식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동안 기업유치 성과로 다음(Daum), NXC 등 몇몇 기업들이 제주로 이전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음
 - 이전기업이란 수도권 및 수도권 이외의 기업이 본사나 지사를 제주로 이전하여 생산 및 부가가치, 고용효과를 내고 있는 기업을 의미함
 - 하지만 이들 이전기업들이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지역경제에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도 없었음
- 2011년 12월 말 현재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총 48개 기업이 도외지역에서 제주로 이전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이들 이전기업들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얼마이고, 이들 파급효과 증대를 위해 어떻게 기업유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됨

제2절 연구 목적

- 제주 이전기업들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전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이전기업들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제3절 연구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현황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구조 현황 등
- 제주이전기업 현황 조사 분석
 - 제주지역 기업유치 현황
 - 신규법인설립 및 기존법인 이전, 임대 및 분양 등의 유형분류
 - 입주 소재 분류
 - 이전기업 지원제도(수도권, 비수도권) 검토
- 이전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효과 산출
 - 다만, 신규 시설임대 기업이거나 본사가 아닌 이유로 지역자료가 없거나, 고용실적이 없거나 이전한지 1년이 안된 기업의 경우 단일 분석이 불가능한 점은 이번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음
- 이전기업들의 만족도 및 애로사항 등 의견 조사
- 기업 유치 활성화 및 이전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도출

제4절 기대효과

- 수도권, 비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제도를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틀 마련
-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제주에 유치할 타깃기업 선정자료 활용
- 이전기업의 애로 및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활동 활성화 도모
- 기업하기 좋은 제주실현으로 타시도 기업들의 제주이전 유도
- 기업유치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II. 현황 분석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경제 현황

1. 지역내총생산

1) 지역내총생산 규모 및 증감률

○ 제주지역 GRDP 및 산업별 생산액 및 증감률은 <표 II-1>와 같음

<표 II-1> 지역내총생산 및 증감률(2005년 대비 2010년)

(단위: 억 원,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p	증감률
전국	8,693,045	9,129,255	9,830,302	10,285,004	10,656,646	11,752,012	35.2
서울	2,088,992	221,346	2,365,167	2,483,832	2,575,980	2,747,786	31.5
부산	480,685	494,335	526,795	561,823	555,256	608,348	26.6
대구	287,562	302,436	322,609	327,143	327,970	363,074	26.3
인천	403,984	433,109	477,799	478,272	502,556	565,178	39.9
대전	200,299	208,023	221,858	232,181	242,113	266,467	33
울산	416,973	432,142	480,594	524,081	512,707	590,590	41.6
경기	1,693,150	1,808,519	1,936,577	1,989,484	2,082,961	2,308,543	36.3
강원	230,146	241,330	259,894	263,105	273,484	291,471	26.6
충북	267,205	279,973	300,007	301,047	321,753	359,888	34.7
충남	474,973	513,613	551,483	579,739	651,338	744,443	56.7
경북	617,572	626,428	639,693	677,119	692,226	794,438	28.6
경남	582,508	617,350	691,571	742,802	772,130	853,656	46.5
광주	188,961	202,990	212,812	217,453	220,661	244,281	29.3
전북	252,211	264,880	285,864	294,713	318,549	345,469	37
전남	428,157	421,815	470,214	523,872	510,476	565,200	32
제주	79,661	80,959	87,359	88,330	96,477	103,175	29.5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2012)

- 2000년 대비 2010년 제주지역내 총생산 증가율은 16개시도 중 제주는 29.5%로 11위를 기록하였음

2) 지역내총생산 비중

-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표 II-2>와 같음

<표 II-2> 지역내총생산 지역별 비중

(단위 : %)

시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p
전국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서울	24.0	24.1	24.1	24.2	24.2	23.4
부산	5.5	5.4	5.4	5.5	5.2	5.2
대구	3.3	3.3	3.3	3.2	3.1	3.1
인천	4.8	4.7	4.9	4.7	4.7	4.8
대전	2.3	2.3	2.3	2.3	2.3	2.3
울산	4.8	4.7	4.9	5.1	4.8	5.0
경기	19.5	19.8	19.7	19.3	19.5	19.6
강원	2.6	2.6	2.6	2.6	2.6	2.5
충북	3.1	3.1	3.1	2.9	3.0	3.1
충남	5.5	5.6	5.6	5.6	6.1	6.3
경북	7.1	6.9	6.5	6.6	6.5	6.8
경남	6.7	6.8	7.0	7.2	7.2	7.3
광주	2.2	2.2	2.2	2.1	2.1	2.1
전북	2.9	2.9	2.9	2.9	3.0	2.9
전남	4.9	4.6	4.8	5.1	4.8	4.8
제주	0.9	0.9	0.9	0.9	0.9	0.9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2012)

- 제주 지역내총생산의 전국 비중은 2010년과 2005년 모두 0.9%로 동일 수준임

3)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 전국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추이는 <표 II-4>과 같음

〈표 II -3〉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추이

(단위 :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p	년평균성장률
서울	2.2	4.3	4.4	3.0	1.7	2.1	3.1
부산	3.0	3.4	4.6	1.0	-3.0	4.7	2.1
대구	0.6	3.9	4.5	1.5	-4.4	7.2	2.5
인천	3.7	6.8	7.4	1.7	0.8	7.7	4.8
대전	2.6	3.4	3.2	1.5	0.5	6.6	3.0
울산	4.6	1.9	4.6	0.2	-2.9	3.6	1.4
경기	11.0	7.7	6.1	4.0	0.8	9.2	5.5
강원	1.8	5.0	4.8	0.9	-0.7	2.8	2.5
충북	0.7	3.9	5.9	2.0	3.4	8.4	4.7
충남	9.8	12.6	7.1	6.2	5.4	12.4	8.7
경북	7.6	1.3	8.9	0.7	-3.1	4.7	2.4
경남	1.9	5.7	5.5	5.7	0.5	7.3	4.9
광주	6.5	6.5	3.7	-0.6	0.3	8.0	3.5
전북	2.2	4.5	5.6	1.1	0.5	5.2	3.4
전남	1.9	1.7	6.5	3.0	0.5	4.1	3.1
제주	0.8	2.1	6.4	-3.4	7.2	1.8	2.7

주) 시도별 성장률은 연쇄지수(2005=100)로 계산한 전년비 및 연평균 실질 성장률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2012).

- 제주의 2005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2.7%로서, 2005년 0.8%보다 2010년 1.8%로 1.0%p 상승했으며 전국 시도별 순위는 11위를 기록

4) 1인당 지역내총생산

- 전국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 및 증감률은 〈표 II -4〉와 같음

〈표 II -4〉 지역별 1인당 지역총소득(당해년가격) 및 증감률

(단위: 천 원, %)

지 역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p	증감률*
전 국	18,042	18,931	20,324	21,318	21,933	24,052	33.3
서 울	26,823	28,109	31,045	31,723	33,032	36,400	35.7
부 산	14,258	15,071	16,079	16,988	17,446	18,685	31.0
대 구	13,214	14,036	14,675	15,316	15,601	17,171	29.9
인 천	14,399	15,501	16,994	18,402	18,082	19,532	35.6
대 전	15,344	16,338	17,317	17,731	18,195	19,724	28.5
울 산	26,320	27,572	30,998	34,629	32,960	38,709	47.1
경 기	17,631	18,491	18,892	19,392	20,135	22,592	28.1
강 원	13,446	14,236	15,285	15,670	16,610	16,853	25.3
충 북	14,500	14,898	15,759	16,845	17,745	18,967	30.8

<표 II -4> 지역별 1인당 지역총소득(당해년가격) 및 증감률(계속)

(단위: 천 원, %)

지 역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p	증감률*
충 남	16,850	17,983	19,020	20,412	20,982	22,966	36.3
경 북	16,754	16,524	17,560	20,462	19,446	21,708	29.6
경 남	14,627	15,656	17,127	19,180	19,173	20,164	37.9
광 주	13,420	14,375	15,342	15,617	16,252	17,869	33.2
전 북	12,294	13,012	14,116	14,927	16,164	16,709	35.9
전 남	15,053	15,327	17,067	18,032	19,361	20,675	37.3
제 주	13,736	13,887	14,736	15,150	17,674	17,580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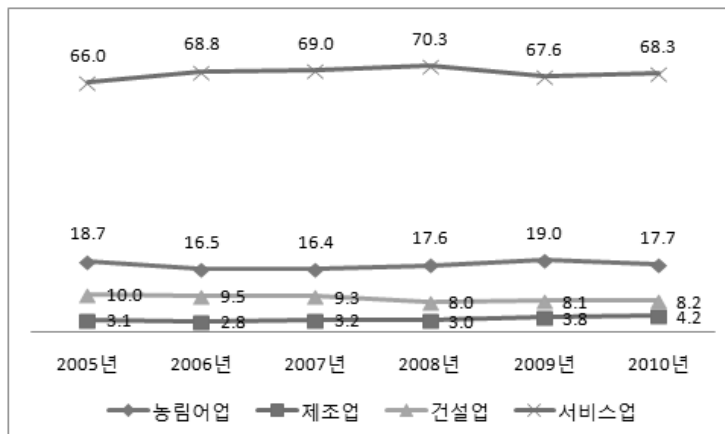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2012). * 2005년대비 2010년 증감률

- 2010년도 제주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8.9백만원으로 2005년 14.7백만원에 비해 28.3%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율은 전국 15위를 기록
- 그러나 2010년도 제주의 1인당 지역총소득의 상대수준은 73.1%로 2005년 76.1%에 비해 3.0%p 낮아짐

5) 산업구조 및 산업별 성장률

- 산업구조(당해년가격)는 <그림 II -1>과 <표 II -5>과 같음
 - 제주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2010년 68.3%)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어업(2010년 17.7%)도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
 - 제조업 비중(2010년 4.2%)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005년(3.1%) 비해 2010년(4.2%) 1.1%p 높아지는 추세임

<그림 II -1> 산업별 비중 추이(제주)



<표 II -5> 산업별 비중(제주)

(단위 : %)

경 제 활 동 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농림어업	18.7	16.5	16.4	17.6	19.0	17.7
광업	0.3	0.2	0.2	0.1	0.3	0.2
제조업	3.1	2.8	3.2	3.0	3.8	4.2
전기,가스,증기,수도	1.9	2.1	1.8	1.0	1.2	1.4
건설업	10.0	9.5	9.3	8.0	8.1	8.2
서비스업	66.0	68.8	69.0	70.3	67.6	68.3
도매및소매업	8.4	8.8	8.5	9.2	9.0	9.3
운수업	5.5	5.9	6.2	5.1	5.2	5.8
숙박및음식점업	4.9	5.1	4.9	5.2	4.9	5.0
정보및통신업	2.7	2.7	2.5	2.3	2.1	2.0
금융및보험업	6.2	5.9	5.9	6.1	5.4	5.6
부동산업및임대업	7.7	7.8	7.5	7.5	7.0	6.9
사업서비스업	2.1	2.4	2.4	2.4	2.7	2.7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10.7	11.2	11.1	11.7	11.2	11.2
교육서비스업	7.7	8.0	8.2	8.7	8.0	7.7
보건,사회복지	4.4	4.6	5.0	5.3	5.4	5.7
예술,스포츠,여가	3.4	4.2	4.6	4.5	4.5	4.3
기타서비스업	2.1	2.1	2.1	2.1	2.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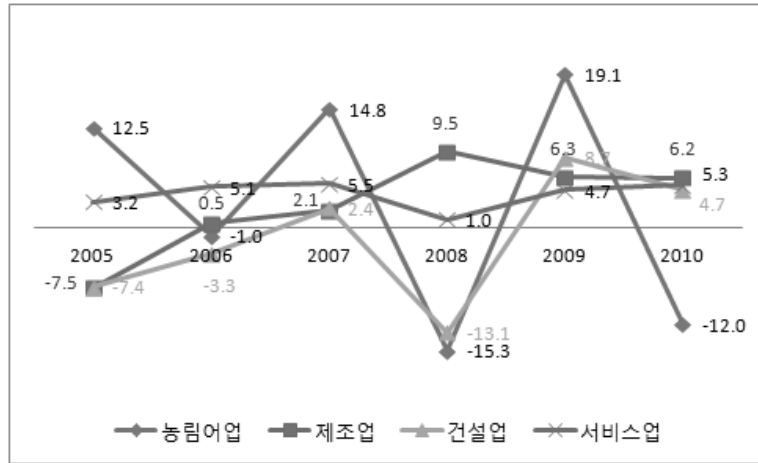
주) 총부가가치(기초가격, 당해년가격)=100 기준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2012).

○ 산업별 성장률(2005년 기준년 가격)은 다음과 같음

- 제조업은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4.9% 성장률로 2005년 (-7.5%)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서비스업 또한 연평균 4.3% 성장률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냄
- 농림어업은 연평균 0.2%의 소폭 성장을 보였으나, 2008년(-15.3%), 2009년(19.1%), 2010년(-12.0%) 등 변동이 심하였음
- 건설업은 연평균 -0.4%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5년(-7.4%) 이후 2008년(-13.1%) 2009년(8.7%), 2010년(4.7%) 등 변동이 심하였음

<그림 II -2> 산업별 성장률 추이(제주)



<표 II -6> 산업별 성장률(제주)

(단위 : %)

경 제 활 동 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성장률
농림어업	12.5	-1.0	14.8	-15.3	19.1	-12.0	0.2
광업	-28.0	-34.4	-0.6	-35.5	86.9	-15.1	-7.8
제조업	-7.5	0.5	2.1	9.5	6.3	6.2	4.9
전기,가스,증기,수도	20.3	15.2	-3.8	19.7	-0.2	2.1	6.2
건설업	-7.4	-3.3	2.4	-13.1	8.7	4.7	-0.4
서비스업	3.2	5.1	5.5	1.0	4.7	5.3	4.3
도매및소매업	3.8	5.9	3.3	1.1	10.0	5.5	5.1
운수업	-4.9	7.1	10.9	-7.6	8.8	23.0	8.0
숙박및음식점업	-0.9	2.1	2.6	-0.6	0.1	1.9	1.2
정보및통신업	2.8	2.8	5.0	-1.3	-1.5	1.1	1.2
금융및보험업	1.5	0.2	9.4	2.7	1.5	2.4	3.2
부동산업및임대업	2.2	4.3	1.2	1.9	1.1	3.7	2.4
사업서비스업	16.6	11.4	4.6	-3.9	18.1	2.6	6.3
공공,국방,보장행정	7.8	5.2	3.1	4.0	2.2	4.5	3.8
교육서비스업	1.6	2.2	6.1	2.8	-1.8	1.0	2.0
보건,사회복지	15.6	3.4	7.0	4.9	13.9	8.1	7.4
예술,스포츠,여가	1.1	23.1	13.0	0.7	11.7	1.4	9.7
기타서비스업	-3.9	3.1	4.0	-0.8	3.9	5.4	3.1

주) 2005년 기준년 가격 기준으로 작성한 전년비 및 연평균 실질증가율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2012).

2.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 전국평균과의 비교

- 전국 사업체수는 2011년 말 현재, 3,470천개소로 전년보다 3.4% 증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체수는 47,144개소로 전년보다 2.9% 증가

<표 II -7> 사업체 수 및 증감률

(단위 : 개소, %)

구 분	전 국		제주특별자치도	
	사 업 체 수	증감률	사 업 체 수	증감률
2000	3,013,417	2.9	38,847	4.1
2001	3,036,554	1.1	40,285	3.8
2002	3,131,963	2.8	41,756	3.7
2003	3,187,916	1.8	42,136	0.9
2004	3,189,890	0.1	42,531	0.9
2005	3,204,809	0.5	43,305	1.8
2006	3,226,569	0.7	43,609	0.7
2007	3,262,925	1.1	44,246	1.5
2008	3,264,782	0.1	44,307	0.1
2009	3,293,558	0.9	45,990	3.8
2010	3,355,470	1.9	45,830	-0.3
2011	3,470,034	3.4	47,144	2.9

자료 : 통계청(2012), 201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 2011년 말 현재 전국 종사자 수는 18,093천명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종사자 수는 203,757명으로 전년보다 0.5% 증가

<표 II -8> 종사자 수 및 증감률

(단위 : 명, %)

구 분	전 국		제주특별자치도	
	종 사 자 수	증감률	종 사 자 수	증감률
2000	13,604,274	5.3	154,005	4.0
2001	14,109,641	3.7	162,314	6.7

〈표 II -8〉 종사자 수 및 증감률

(단위 : 명, %)

구 분	전 국		제주특별자치도	
	종 사 자 수	증감률	종 사 자 수	증감률
2002	14,608,322	3.5	173,809	7.1
2003	14,729,166	0.8	169,787	-2.3
2004	14,818,754	0.6	167,612	-1.2
2005	15,147,471	2.2	171,844	2.5
2006	15,435,766	1.9	176,648	2.8
2007	15,843,674	3.2	178,982	1.3
2008	16,288,280	2.2	180,882	1.1
2009	16,818,015	3.3	200,130	10.6
2010	17,647,028	4.9	202,676	1.3
2011	18,093,190	3.2	203,757	0.5

자료 : 통계청(2012), 201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2)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수는 〈표 II -9〉와 같음

〈표 II -9〉 제주지역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수

(단위 : 개소, %)

산업분류	2010년	2011년	증감	증감률
전산업	45,830	47,144	1,314	2.9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389	387	-2	-0.5
B 광업 (05 ~ 08)	20	22	2	10.0
C 제조업 (10 ~ 33)	1,850	1,880	30	1.6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 ~ 36)	28	29	1	3.6
E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67	71	4	6.0
F 건설업 (41 ~ 42)	1,302	1,393	91	7.0
G 도매 및 소매업(45 ~ 47)	11,969	12,353	384	3.2
H 운수업(49 ~ 52)	5,796	5,773	-23	-0.4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10,785	11,161	376	3.5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230	247	17	7.4
K 금융 및 보험업 (64 ~ 66)	618	632	14	2.3

〈표 II -9〉 제주지역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수(계속)

(단위 : 개소, %)

산업분류	2010년	2011년	증감	증감률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 69)	916	962	46	5.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 73)	672	698	26	3.9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852	939	87	10.2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208	206	-2	-1.0
P 교육 서비스업(85)	2,301	2,373	72	3.1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 87)	1,473	1,524	51	3.5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1,397	1,448	51	3.7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4,957	5,046	89	1.8
T 가구내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생산활동(97 ~ 98)	0	0	0	0
U 국제 및 외국기관(99)	0	0	0	0

자료 : 통계청(2012), 전국사업체조사

- 제주지역 2011년 기준 사업체 수는 전년도에 비해 2.9% 증가한 가운데, 사업체 증가율이 가장 많은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광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건설업으로 많게는 10.2%, 적게는 7.0% 증가함
- 사업체 감소를 보인 산업으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운수업, 농업 임업 및 어업이 1% 범위 내에서 감소하였음
-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종사자 수는 <표 II -10>과 같음

〈표 II -10〉 제주지역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종사자 수

(단위 : 명, %)

산업분류	2010년	2011년	증감	증감률
전산업	202,676	203,757	1,081	0.5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3,915	3,748	-167	-4.3
B 광업 (05 ~ 08)	306	335	29	9.5
C 제조업 (10 ~ 33)	8,540	8,434	-106	-1.2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 ~ 36)	925	931	6	0.6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725	659	-66	-9.1
F 건설업 (41 ~ 42)	16,694	14,117	-2,577	-15.4

〈표 II -10〉 제주지역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종사자 수(계속)

(단위 : 명, %)

산업분류	2010년	2011년	증감	증감률
G 도매 및 소매업(45 ~ 47)	33,259	35,176	1,917	5.8
H 운수업(49 ~ 52)	13,538	13,412	-126	-0.9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33,005	34,693	1,688	5.1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4,032	3,902	-130	-3.2
K 금융 및 보험업 (64 ~ 66)	9,120	9,448	328	3.6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 69)	3,180	3,062	-118	-3.7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 73)	4,291	4,384	93	2.2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7,777	6,427	-1,350	-17.4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10,320	10,411	91	0.9
P 교육 서비스업(85)	17,430	18,070	640	3.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 87)	15,971	15,731	-240	-1.5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8,892	9,614	722	8.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10,756	11,203	447	4.2
T 가구내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생산활동(97 ~ 98)	0	0	0	0
U 국제 및 외국기관(99)	0	0	0	0

자료 : 통계청(2012), 전국사업체조사

- 제주지역 2011년 기준 산업체 종사자 수는 전체 0.5% 증가한 가운데, 종사자 증가율이 높은 산업은 광업 9.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1%, 교육서비스업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종사자 수가 감소한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7.4%, 건설업 -15.4%, 농업 임업 및 어업 -4.3% 순으로 나타남

3. 지역경제 특성 및 시사점

- 제주지역경제의 통계자료 및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의 세미나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도민 1인당 총생산은 전국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구조면에서 관광산업과 1차 감귤산업을 두 개 축으로 하고, 제조업은 3-4%의 비중을 보이는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저성장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풀이됨
 - 제주가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자원을 기반으로 1·3차 산업이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제조업을 하기에는 도서지역적 특성으로 물류비용등의 문제로 인한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제조업 활성화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게다가 정부소비지출에 의존한 건설투자, 관광수입의 의존 등 이출입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제주지역은 관광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관계로 서비스형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어 이출입의 균형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제주에 적합한 신산업 육성에 매진해야 함
 -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커 고용창출 및 상품교역을 확대시키는 제조업 육성이 매우 필요함
- 특히 제주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업을 제주로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제주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교육 및 의료산업과 연계한 제조기업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함

제2절 제주 이전기업 현황

1. 제주 이전기업 현황

- 제주 이전기업은 2004년 이후 2012년 9월 현재, 기업 이전은 34개 기업, 콜센터 7개 기업, 연수원 7개 기업으로 집계되고 있음
 - 이전기업이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본사나 지사를 제주로 이전하여 생산 및 부가가치, 고용효과를 내고 있는 기업을 의미함
 - 형태로는 본사 이전, 분사무소(지사) 이전, 연수원시설설치가 있음
- 이중 이전기업 34개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전 완료가 8개 기업, 건축 중 5개 기업, 착공준비 1개 기업이 있고, 첨단과학단지 시설입주 20개 기업 등으로 파악됨

<표 II -11> 이전 완료 기업

기업명	소재지	업 종	이전일	자본금	비 고
(주)EMLSI	제주시 연동	반도체 설계 및 개발	2004.12.27	11억 원	서울 ('04)
보타메디 (종전:라이브캠)	제주시 아라동	간기능 개선음료	2006. 5. 23	30억 원	대전 ('06)
키멘슨전자(주)	애월읍 어음리	음향기기 제조	2007.12.27	1억 원	경기 부천 ('07)
(주)NXC	제주시 노형동	(주)넥슨 지주회사	2009. 3.17	21억 원	서울 강남 ('09)
(주)한국BMI	첨단과기단지	의약품 제조	2011. 6월 공장정상가동	25억 원	경기 화성 ('09)
(주)PNI시스템	첨단과기단지	소프트웨어 개발	2011. 10. 6	1억 원	서울 금천 ('10)
(주)다음 커뮤니케이션	첨단과기단지	인터넷 미디어 등	2012. 4. 5	64억 원	서울 용산 ('09)
(주)미락	애월읍 금성리	육류가공업	2012.7.9	-	부산 ('1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 건축 중인 5개 기업의 현황은 <표 II-12>와 같음

<표 II -12> 건축 중인 기업 현황

기업명	소재지	업종	자본금	이전일
(주)이스트소프트	첨단과학기술단지	소프트웨어 개발	25억 원	· 2012. 11월 완공예정
(주)온코퍼레이션	"	도소매 수출업	20억 원	· 2012. 3. 24 착공 · 2013. 5월 완공예정
아인스S&C	"	소프트웨어 개발	2억 원	· 2012. 3. 9 착공 · 2013. 5월 완공예정
(주)모뉴엘	"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637억 원	· 2012. 9. 15 착공 · 2013. 10월 완공예정
(주)우성진공	제주시 해안동	기계펌프 압축기제조	98억 원	· 2012. 9. 14 착공 · 2013. 12월 완공예정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 착공예정기업은 1개소로 낙뢰보호장치를 개발하는 (주)선광 LTI(대표 김동진)가 올 연말에 착공할 예정임
- 과학기술단지 임대시설 입주 도외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신시웨이 등 20개사임
- 수도권 이전기업과 비수도권 이전기업 현황을 구분해보면 <표 II -13>과 같음

<표 II -13> 수도권 이전기업 및 비수도권 이전기업현황

	계	수도권	비수도권기업	기타
이전기업	34	28	6	-
콜센터	7	7	-	-
연수원	7	7	-	-

○ 제주이전기업 소재지는 <표 II -14>와 같음

<표 II -14> 제주 이전기업 소재지 현황

	이전기업 입주	임대시설 입주	기타
첨단과학기술단지	7	20	-
제주시 동지역	10	-	-
제주시 읍면지역	5	-	-
서귀포시 동지역	2	-	-
서귀포시 읍면지역	-	-	-

2. 이전기업 고용 및 매출액 현황

○ 이전기업의 업종, 고용 및 고용 계획 및 자본금과 매출액 내용은 <표 II-15>와 같음

<표 II -15> 이전기업 업종, 고용, 매출액 현황

	기업명	업 종	자본금	고용계획/ 고용인원	‘11매출액
이전 기업	(주)EMLSI	반도체 설계 및 개발	11억 원	48(49)	822억 원
	보타메디 (종전:라이브캠)	간기능 개선음료	30억 원	23(26)	22억 원
	키멘슨전자(주)	음향기기 제조	1억 원	143(68)	420억 원
	(주)NXC	(주)넥슨 지주회사	21억 원	39(48)	1,747억 원
	(주)한국BMI	의약품 제조	25억 원	66(43)	110억 원
	(주)PNI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1억 원	34(29)	40억 원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인터넷 미디어 등	64억 원	350(320)	4,331억 원
건축 중	(주)미락	육류가공업	-	45(7)	신규
	(주)이스트소프트	소프트웨어 개발	25억 원	50(-)	331억 원
	(주)온코퍼레이션	도소매 수출업	20억 원	56(-)	1,822억 원
	아인스S&C	소프트웨어 개발	2억 원	32(-)	62억 원
	(주)모뉴엘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637억 원	227(-)	4,605억 원
착공 예정	(주)우성진공	기계펌프 압축기제조	98억 원	48(-)	56억 원
	(주)선광 LTI	낙뢰보호장치 개발		40/0	신규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 콜센터 이전기업의 고용 및 자본금 현황은 <표 II -16>과 같음

<표 II -16> 제주이전 콜센터 현황

기업명	업 종	자본금	소재지	고용인원	설립
(주)다음서비스	인터넷 검색	20억 원	노형동	500/415	‘07. 3
(주)JMC	콜센터	-	연동	32/22	‘09. 3
(주)넥슨네트웍스	게임유통및 서비스	5억 원	노형동	250/210	‘09. 7
TM파워(주)	인터넷회선	-	연동	105/8	‘10. 1
동부화재직영콜센터	자동차보험 매상담	-	도남동	50/42	‘10. 3
(주)KT모바일고객지원센터	콜센터	-	이도1동	180/167	‘11. 11
제주스마일콜	여행, 특산품판매	-	노형	20/ -	신규설립 준비중

○ 연수원 이전기업의 고용 및 사업비 현황은 <표 II-17>과 같음

<표 II-17> 제주이전 연수원 현황

기 업 명	소재지	고용현황(명)		투자액 (억 원)	2011년 매출액	유치 시기
		계획	고용			
새마을금고 연수원	소길리	80	79(75)	303	연 31천 명	2007
농협중앙회 연수원	표선	30	-	350	연 50천 명	2009
비알 뇌교육 연수원	어음리	100	-	650	연 40천 명	2009
방송대학교 연수원	김녕리	미정	-	62	연 30천 명	2009
KAIST 연수원	김녕리	미정	-	60	-	2009
(주)블랙약크	색달동	미정	-	200	-	2012
충북교육청	곽지리	미정	-	97	-	2012

3. 제주 이전기업 현황 총괄

○ 국내 기업 제주이전 설립은 총 48개 기업에 고용계획은 2,713명, 2012년 9월 현재 고용은 1,610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18> 제주 이전기업 현황 총괄

구분	기업 수	고용현황(명)		
		계획	고용	향후 고용
이전기업	8개사	748	590	158
건축중	5개사	413		413
착공예정	1개사	40		40
과기단지 임대 입주	20개사	165	67	98
콜센터	7개사	1,137	874	263
연수원	7개사	210	78	131
합계	48개사	2,713	1,610	1,103

제3절 기업이전 정책

1. 수도권 기업이전 지원정책

- 정부는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함
 - 1998년 8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중요 사안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마련했으며, 건설교통부는 2000년부터 이전기업 지원근거와 이전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세제, 금융, 이전부지매입, 배후도시개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음
-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킴으로써
 - 지역인력의 고용 창출, 인구 분산으로 수도권 과밀 억제, 이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로 인한 지방분권의 기틀 마련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정책의 주요한 핵심과제로 삼음
- 초기에 시행주체 간의 갈등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제대로 된 정책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노무현 정부때부터는 정책집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수도권 지역 기업이전 지원정책의 시행주체는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 내용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입지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입지 부지에 대한 매각 지원, 이전과 관련된 각종 행정정보 처리, 새로운 지역에 대한 입지/이전 지원금 지원, 이전 지역에서의 고용, 교육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기업이전 지원제도 총괄

-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업체당 100억 원까지 용지매입과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함(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규칙)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 개정 고시(지식경제부 2010년 1월 4일)
- 수도권 기업의 이전 대상지역을 중국 등 해외에서 지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하며 100명 이상 고용 업체 1,400여개를 대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용지매입 및 고용, 교육훈련 등의 명목으로 기업당 10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 수도권에서 3년 이상의 사업기간을 가진 50인 이상의 기업(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 제외)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지원범위는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기타 등임
- 용지매입 지원은 분양가 또는 토지 매입비의 50% 범위, 고용 및 교육지원은 지역민 20명 이상 고용 또는 교육훈련 시 초과인원 1명당 최대 6개월간 50만 원 한도임
-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은 지자체 부담분의 80%까지 지원함
- 정부의 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 방식(중앙정부 및 지자체 각 50억 원까지)으로 지원됨
- 공장이전 뿐만 아니라 본사 또는 연구소가 이전하는 경우와 대기업이전에 따른 소규모 협력업체가 집단 이주할 때도 지원됨(공장은 고용규모가 이전 후 2년대 100명, 본사는 50명, 연구소는 30명 이상이 되어야 함)
- 2012년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 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를 재개정하여 현재 전략·선도·특화 업종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2012년6월29일)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각기 다른 지원 금액을 제공하고 있음
- 각 지원 금액 또한 각 년도의 재정상태, 타 지자체와의 경쟁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추세를 보임

2) 국세·지방세 세제혜택

- 이전 기업은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양 측면에서 세제혜택을 받음
 - 국세혜택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2조2항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이전시기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면제 혹은 감면받게 됨
 - 지방세법 및 각 시도별 조례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이전한 기업은 공장, 본사의 구분 없이 취득세, 등록세를 일정기간 면제받으며, 재산세까지 감면받고 있음

(1) 국세

- 국세에 대한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제63조의 2에 근거하고 있음

<표 II -19> 국세에 대한 세제혜택 내용

현재지역	이전지역	이전대상	이전기한	감면내용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외	3년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공장, 본사	2014.12.31	법인세 6년간 면제이후 3년간 50% 감면 (* 63조 2)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2년이상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공장	2014.12.31	법인세 또는 소득세 6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 63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본사	2014.12.31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5년간 연기, 이후 5년간 분할납부(* 61조)
대도시권 내	대도시권외	공장	2014.12.31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5년간 연기, 이후 5년간 분할납부(* 60조)

(2) 지방세

- 지방세에 대한 세제혜택은 도세감면조례에 근거하고 있음

<표 II -20> 지방세 세제혜택 내용

구분	대상	감면내용
취득세 등록 면허세	제주도 외 지역의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 부동산 및 기계장비 취득세 면제 •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 면제 * 초과액산정과 그 초과액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 안 함
	제주도 외 지역의 공장을 제주도로 이전	• 부동산 취득세 면제
	최근 3년 동안(1회만이라도)연 100만 불 이상의 수출기업이 본점 또는 공장을 제주도로 이전	• 부동산 및 기계장비 취득세 면제
	신성장 제조업(수상레저기구, 신재생에너지설비, 레저스포츠용품) 본점 또는 공장을 제주로 이전	• 부동산 및 기계장비 취득세 면제
재산세	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공장을 제주도로 이전	• 제주시로 이전 : 재산세 7년간 면제 • 서귀포시로 이전 : 재산세 10년간 면제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의 본점 또는 공장을 제주도로 이전	• 제주시로 이전 : 재산세 5년간 면제 • 서귀포시로 이전 : 재산세 7년간 면제
	최근 3년 동안(1회만이라도) 연 100만 불 이상의 수출기업이 본점 또는 공장을 제주도로 이전	• 제주시로 이전 : 재산세 10년간 면제 • 서귀포시로 이전 : 재산세 15년간 면제
	신성장 제조업(수상레저기구, 신재생에너지설비, 레저스포츠용품) 본점 또는 공장을 제주로 이전	• 제주시로 이전 : 재산세 10년간 면제 • 서귀포시로 이전 : 재산세 15년간 면제

3) 자금(융자)지원

<표 II -21> 자금지원제도 내용

구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대상	•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상시고용인원 20인이상)	
융자기간	•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80%이내(한도40억 원)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임차, 장비구입 및 설치소요자금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의 80% (한도 5억 원) *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해당 없음
융자내용	• 부지매입 또는 임차, 건축, 시설장비구 입, 기반시설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투자자 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 운전자금
금리	• 담보 종류에 관계없이 전면 자율 금리	
처리절차	• 신청 : 제주신용보증재단(평가 및 현지 확인)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결정	
취급은행	• 도내 금융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전기업 지원제도

1)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표 II -22〉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보조금	지원내용	한도액	지원대상기업
•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45% * 단 이전전 부지면적의 5배이내, 아파트형공장은 연면적의 3배 이내	• 국비지원액 60억 원	• 수도권 소재 3년 이상 사업영위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기업
•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비의 15% * 전략선도·특화업종 17%		

2) 신·중설 투자기업 지원

〈표 II -23〉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보조금	지원내용	한도액	지원대상기업
•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비의 15%	• 국비지원액 60억 원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중소기업이(전략선도·특화업종) 10억 원 이상 투자한 경우 * 지식서비스산업 : 1억 원 이상 투자

※ 지역전략산업 (2개분야 43종) : 바이오산업, IT산업
지역선도산업(3개분야) : 풍력서비스, 차세대식품융합, MICE산업
특화업종(2개분야 11종) : 식료품제조업, 기초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25종) :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전기통신업, 정보서비스업 등

3) 국내복귀기업 (U턴기업)지원

〈표 II -24〉 제주 이전기업 현황 총괄

보조금	지원내용	한도액	지원대상기업
•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45% * 단 이전전 부지면적의 5배 이내 아파트형공장은 연면적의 3배 이내	• 기업당 5억 원이내	• 내국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한 경우로써 -국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 -국외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최근 2년간 30명 이상일 것 -국내 복귀 후 국내에서 창출한 신규고용이 30명 이상일 것 -국내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4년 이내에 국외 사업장 철수를 완료할 것(단,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U턴기업은 제외)
•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비의 15% * 전략·선도·특화업종 17%	• 국비지원액 60억 원 (입지포함)	

4) 수도권 외 이전기업 지원

〈표 II -25〉 수도권 외 이전기업 지원

보조금	지원내용	한도액	지원대상기업
•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25% * 단 이전전 부지면적의 5배 이내 아파트형공장은 연면적의 3배 이내	• 없음	• 수도권 외 지역에서 2년 이상 사업영위한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기업
• 설비투자 보조금	• 설비투자비의 10%	• 없음	
•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인원 10인(관내거주자) 초과 시 고 용인원 1인당 월 50만 원 12개월범위	• 1억 원	
• 교육훈련 보조금	• 신규고용인원 10인(관내거주자) 초과시 교육 인원 1인당 월 50만 원 6개월범위	• 1억 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수도권 기업이 제주로 이전할 경우에도 수도권기
업에 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2008년 10월 제주시투자유치촉
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대기업 연수원에도 제주지역 투자기업에 준해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5) 정보통신산업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지원

〈표 II -26〉 정보통신산업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지원 내용

보조금	지원내용	한도액	지원대상기업
• 건물임대료	• 상시고용인원 30인 초과 시 - 건물임대료의 50%, 3년간 지원	• 5억 원	• 정보통신산업 및 텔 레마케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 물을 임차하여 도민 등을 상시 고용인원 으로 고용하는 경우
• 시설장비 구입비	• 상시고용인원 30인 초과 시 30% 50인 초과 시 40%, 100인 초과 시 50%	• 3~5억 원	
• 고용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20인(관내거주자) 초과 시 - 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 6개월범위 최근 6개월 평균임금의 70%	• 3억 원	
• 교육훈련 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20인(관내거주자) 이상시 - 교육인원 1인당 월 100만원 6개월범위 실소요비용 (* 단, 사외교육비 적용)	• 3억 원	

6) 보조금 지원기업 의무사항

〈표 II -27〉 수도권 외 이전기업 지원 내용

구분	의무사항
이전기업 · 신증설 · 국내복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지원을 받은 기업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착공 •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투자규모, 고용창출인원을 달성해야 하며,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함 * 의무사업 이행기간 :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
정보통신산업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영위 •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받은 인원규모 3년이상 유지

3. 시도별 지방투자기업 특별지원제도

- 이상과 같이 수도권기업 이전제도의 내용은 전국이 대동소이하지만, 정부는 일반지역(입지 40%, 설비투자 10%), 수도권인접지역(입지 15%, 설비투자 7%), 지원실적저조지역(제주, 울산, 경남·북, 광주, 대구, 부산 등 7개 지역/입지 45%, 설비투자 15%)으로 나눠 기업이전을 독려하는 지원제도를 지역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음
- 각 지자체는 국비사업과 별도로 지역투자 유치를 위해 순수 지방비 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컨설팅비용 보조, 타당성조사비 지원, 수출기업 보조(제주) 등 차별화된 지원제도를 강구하고 있음

1)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 각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범위 및 지원 규모, 보조금 산출기준 등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지원대상 범위(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
 - 투자금액 : 시도별 다름(300억~1,000억), 부지매입비도 포함

제 주	300억 이상(시설투자비, 부지매입비는 미포함)
강원도	이전기업은 300억 이상, 투자기업은 700억 이상
대 전	300억 이상(단, 미래전략산업은 100억 이상)
울 산	500억 이상 / 전북·경북 : 1,000억 이상

- 상시고용인원 : 제주 50명, 타 시도는 200명 이상 설정

제 주	50명 이상 - 강원도 : 200명 이상
강원도	이전기업은 300억 이상, 투자기업은 700억 이상
울산·전북	300명 이상 - 경북 : 500명 이상

○ 보조금 지원규모(순 지방비)

- 보조금 : 시도별 다름(50억 원 ~ 100억 원)

제주	50억 원까지
강원도	투자기업 최대 50억 원, 이전기업 최대 120억 원 * 이전기업 국비지원 시 120억 원(국비60억+지방 15억<지방 추가 45억>) 이전기업 국비미지원 시 60억 원 까지(지방비)
울산·전북	100억 원까지
경북·대전	조례·규칙에 특별지원 규정했으나, 보조한도 미명시
기타시도	특별지원 규정과 특별한 인센티브 없음

○ 보조금 산출기준

제 주	시설투자비(건축+설비+기반) 의 5%
강원도	투자비(부지매입+시설투자) 의 5%
울산·전북	투자비(부지매입+시설투자) 의 5%

- 제주는 시설투자비의 5%, 타시도는 부지매입 포함 5%~50% 지원

2) 시도별 지방투자기업 특별지원제도 현황

시 도	지 원 제 도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규모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보조금 지원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비 지원 : 최고 120억 원(국비 60, 지방비 60) ② 지방비 지원 : 상시고용인원 20명 ~ 200명 이상 (최소 10억 ~ 60억 원 지원)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외 투자금액이 7백억 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함. ②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투자규모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이전기업)에 따라 신청한 부지매입금액은 제외함. ③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음. 산업시설용지 지원

시 도	지 원 제 도
강원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음.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도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로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② 대규모 투자기업이 아니더라도 전라북도 전략산업 육성에 핵심이 되는 기업으로 반드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③ ②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중 공장 생산기반시설 보조금은 입주계약일(공장설립승인일) 또는 토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내에 신청할 경우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에 입주하는 기업은 생산시설 투자비용의 100분의 30 범위, 기업당 총 30억 원(단, 개별입지는 기업당 총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④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중 현금 지원은 도내로 이주 후 1년이상 거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 최대 1년까지 지원하되, 공장 가동일로부터 3년내에 신청해야함. ⑤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의 근로자 정착금은 협력업체별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기업(수도권 이전기업포함)이 5백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 대규모 투자의 경우 ② 규정에 관계없이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 결정 방법 등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함.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기업이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 ②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투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③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익년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투자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국내기업 ②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금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태양광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③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시 도	지 원 제 도
경상 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외기업의 본점 도내이전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 원을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②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충청 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운영비 등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외 기업이 신설·증설·이전 투자로 인한 최초 가동시점부터 3년간 ② 오·폐수 처리비용의 50% 범위에서 최고 3억 원 ③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범위에서 최고 15억 원
충청 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비 보조금 부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비 :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다. 나. 지방비 :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은 일반지역의 경우 각각 50%로 하고, 낙후·신발전지역의 경우 각각 70%와 30%로 한다. ② 국비가 보조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비 : 시장·군수가 보조하고자 하는 금액의 50% 나. 시·군비 : 시장·군주가 보조하고자 하는 금액의 50%
광주 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보조금의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컨설팅에 실제 소요된 비용 범위에서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기업당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② 컨설팅 실시 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함. ③ 컨설팅 범위는 사업성 검토,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등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신설에 따른 투자절차이행에 관련된 사항이어야 함.
대구 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용지 등의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규칙에서 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가 개발한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 등 저가로 분양할 수 있음. ② 규칙에서 정하는 기업이 시 이외의 자가 개발한 산업단지의 토지를 분양받는 경우 그 분양가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조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 원
대전 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기업이 공장시설을 산업단지안에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음. •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 ②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기업

시 도	지 원 제 도
대전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시장이 정하는 미래신성장산업기업 ④ 위항에 준하는 기업으로 시장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⑤ 특별지원의 범위 및 내용 등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함. <p>• 기술이전·사업화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1년 이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의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② 사업비 지원은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사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범위 등 ①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② 세부적인 지원규모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③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단 입지지원, 시설보조금지원 등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④ 도로·항만·용수시설·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전기·통신·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⑤ 그 밖에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⑥ 연차별 투자계획의 경우에는 사업착수일로부터 5개년 이내의 투자로 함.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서비스업 지원 ① 시장은 기술력 향상과 고용증진 효과가 큰 생산자서비스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임차료, 건물임차료상당액 또는 시설·장비 설치비 중 일부를 생산자서비스업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②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③ 생산자서비스업보조금을 지원하면 7년 이내 지역 외 이전금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④ 기업의 1년분 건물 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상당액의 100분의 50범위(지원한도 : 2억 원) ⑤ 기업의 시설·장비 설치비의 100분의 30범위(지원한도 : 3억 원) ⑥ 기업의 건물임차료 부담이 과다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설투자비가 300억 원을 초과하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투자기업 ② 투자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50억 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특별지원금은 투자비의 100분의 5내로 한다) <p>• 기업이전 및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이전기업 및 수도권 외 이전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및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수출기업(보조금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는 각 보조금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제주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음)

시 도	지 원 제 도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비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이 투자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컨설팅 비용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기반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 상·하수도시설,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이 시설투자사업을 위하여 도내 건설업체를 포함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 할 수 있음.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3) 각 지자체 텔레마케팅서비스업(콜센터) 지원제도

구분	건물임대료	시설장비구입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하여 도민 등을 상시 고용하는 경우 			
	• 상시 30명이상 고용시(임대료의 50%, 3년간 · 한도 5억 원)	• 30명~100명초과 고용시(초기 장비구입비의 30~50%까지 · 한도 5억 원)	• 20명초과 고용시(6개월×100만 원/1인 · 한도 3억 원)	• 20명이상 고용시(6개월×100만 원/1인 · 한도 3억 원)
광주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액 20억 원이상, 상시고용인 20명이상 기업 또는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기업 			
	• 임대료(상당액)의 50%, 한도 3억 원)	• 시설장비구입비의 30%, 한도 2억 원)	• 20명초과 고용시(4개월×50만 원/1인)	• 20명초과 고용시(1개월×50만 원/1인)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기업중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상인 경우 			
	• 1년분 임대료의 50%, 한도 2억 원)	• 시설장비설치비의 30%, 한도 3억 원)	-	-
대전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인 기업 			
	• 임대료의 25% (한도 2억 원)	• 투자액이 10억 원 초과시 초과액의 5%범위	• 10인초과 고용시1인당 50만원범위)	• 신규채용인원 30명이상 10일이상 교육 실시(6개월×50만 원/1인 · 1회 한해 지원)
대구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고용인원 50명 초과시 			
	• 1년분 임대료의 50%, 한도 2억 원)	• 시설장비설치비의 20%, 한도 3억 원)	• 20명초과 고용시(6개월×50만 원/1인)	• 20명 초과 고용시(6개월×50만 원/1인)

구분	건물임대료	시설장비구입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강원도 (원주, 춘천)	• 1일 상시고용규모가 50인이상 신설, 증설, 이전기업			
	• 임대료의 30%, 한도 5억 원) • 부지매입비의 10%, 한도 10억 원)	• 투자비의 10%, 한도 10억 원)	• 10명 초과 고용시(12개월×60만원/1인, 한도 10억 원)	• 10명 초과 고용시(6개월×60만원/1인, 한도 10억 원)
전라북도 전주시	•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기업			
	• 연간 임대료의 30%, 한도 2억 원)	• 시설투자비의 30%, 한도 3억 원)	-	-

○ 제주도의 비교우위

구 분	내 용
건물임대료	• 타시도 상시고용인 50명/제주 30명으로 지원규모 확대
시설장비구입비	• 타시도 시설장비비의 30~10%/제주 50%로 20~40% 확대 지원
고용보조금	• 강원 인원 60명초과 12개월 (한도 10억 원)/제주 : 인원 20명초과 - 6개월 (한도 3억 원)
교육훈련보조금	• 강원 인원 60명초과 6개월 (한도 10억 원)/제주 : 인원 20명이상 - 6개월(한도 3억 원)

4) 시사점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거의 동일함
- 그 외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면서 지역에 투자하는 대규모 기업 지원, 지역차원의 지방비지원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그 범위와 지원비율은 차이가 남
-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의 경우 제주, 강원, 대전, 울산, 전북, 경북, 대전 등 7개시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그 외 시도는 인센티브가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투자금액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반면, 타 지자체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300억이상 1000억 원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부지매입비를 포함하는 것을 추진 검토해야 하며, 당해연도 예산안 편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필요함
- 지원인센티브의 경우 획일적 비교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컨설팅 비용 보조, 수출기업 보조 등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 콜센터 지원내용은 건물임대료지원 대상 범위가 타시도보다 넓고, 시설장비구입비의 경우 지원내용이 타시도보다 비율이 높음
-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범위도 타시도보다 확대되어 있음

Ⅲ. 제주 이전기업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1절 파급효과 분석

1. 지역파급효과 분석

- 지역파급효과분석(regional impact analysis)은 지역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지역 내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함(Armstrong & Taylor, 1978)
 - 지역파급효과분석은 일반적으로 지역정책의 추진 및 사업시행 이전 단계에 지역효과를 예측함으로써 대안을 모색하거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가 되거나, 사업시행 이후 단계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함
- 기업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임
 - 다만 기업이전의 파급효과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주제로서 기업의 입지결정에 관한 연구는 지리경제학, 지역학, 경영학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Woodward 1992, 김갑성 외 2003) 이들 연구는 교통, 노동력, 교육여건, 정책환경, 특히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생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 이전하는 기업의 파급효과를 간접적으로 기업의 입지 결정과 그 파급효과 연구를 통해 유추해 낼 수 있음
-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새로운 공장의 입지나 폐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계분석이나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예측함
 - Greenstone 외(2003)는 BMW공장의 입지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얻은 이익을 임금, 공공재정, 자산가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형 제조업 공장의 유치를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그 이상의 혜택을 지역에 가져다준다고 주장
 - Evans 외(2002)는 1988년 인디언 보호지역들에 카지노 입지를 승인한 후 인근지역에서 26%의 고용 증가가 있었고, 빈곤 노동자가 14%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음

- 문남철(2006)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의 기업이전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의 공간적 패턴과 이전 요인을 분석하여 현재의 지방이전 유인정책이 균형 있는 지역발전보다는 특정지역에 특정산업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지속적인 유인정책이 없을 경우에는 그나마 겨우 갖춰지기 시작한 지역경제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함

2. 분석기법의 유형

- 파급효과분석은 변화를 목적으로 시도되는 시책이나 사업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영향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영향의 성격에 따라 측정기법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음
- 주요 분석기법으로는 지역승수 분석기법, 지역투입산출 분석기법에 대하여 분류하고 검토하였음

① 지역승수 분석기법

- 정책, 시책 및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 소득, 고용 증대가 이차적으로 파생시키는 간접 및 유발효과를 측정하는 기법임
 - 측정기법으로는 경제기반모형, 케인지안 모형 등 승수효과를 총량적으로 측정하는 기법과 간접 및 유발효과를 창출하는 요인과 영향력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지역계량경제모형이 있으나, 재정투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배제하였음

② 지역투입산출모형

- 지역투입산출모형은 지역정책 및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특정산업의 생산, 즉 최종수요가 한 단위 변화될 때 연관산업과의 연계관계와 이에따른 유발승수를 측정하는 기법임.
 - 이 기법은 총량적인 수준의 승수효과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전후방 연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기법임

- 이 모형에서는 지역의 산업연계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내 산업 연관모형과 타 지역산업과의 연계관계를 분석하는 다지역 산업연관 모형이 있음
- 본 연구에 활용될 제주지역산업연관표는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에 해당됨

3. 제주지역에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사례

1)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의 제주지역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 제주발전연구원(연구책임 고성보, 2004)은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의 제주지역 이전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음. 이 연구에서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부분적으로 이전이 일어나는 2004년부터 4차 입주가 완성되는 2014년까지의 향후 11년간의 효과를 분석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다음 커뮤니케이션 본사의 제주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첫째, 건설투자에 따른 지역건설경기 부양효과, 둘째 제주에 근무하는 직원들 급여의 소비지출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셋째, 접대비, 도서인쇄비 등 영업비용 지출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건설투자에 따른 지역경제경기 부양효과는 다음의 본사 제주이전에 따른 건설계획에 따른 건설투자금액을 바탕으로 건설부문과 연관산업에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소비지출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제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연도별 급여 추정액을 살펴보고, 급여의 일정부분이 소비지출(식료품, 교통·통신, 교육, 피복 및 신발 등)로 이어지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산출, 고용, 소득효과로 구분하여 계측하였음
 - 영업비용 지출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접대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차량유지비 등의 형태로 지역에 지출행위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용 총지출액(지급임차료, 통신비, 접대비, 보험료 등)을 추정하고 산출, 고용, 소득효과를 구분하여 계측하였음

2) JDC프로젝트 파급효과 분석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사업(면세점 운영, 각종 개발사업 등)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을 실시
- 본 분석에서는 JDC가 추진한 사업에 따른 제주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업투자비의 지출효과와 사업운영시의 시설 이용객 소비지출 증가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봄
 - 시설투자비 투입은 건설 산업 등에 수요증대가 나타남
 - 이용객 소비지출은 관광산업 등 수용 증대로 나타남
- JDC 사업추진에 따른 결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경제적 측면에서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함
 - 6대 핵심프로젝트와 관련된 JDC와 민간·국비·지방비의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JDC와 민간 등의 69,656억 원)에 따른 관련된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세 가지로 나눠 제주도내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3) 국책기관 등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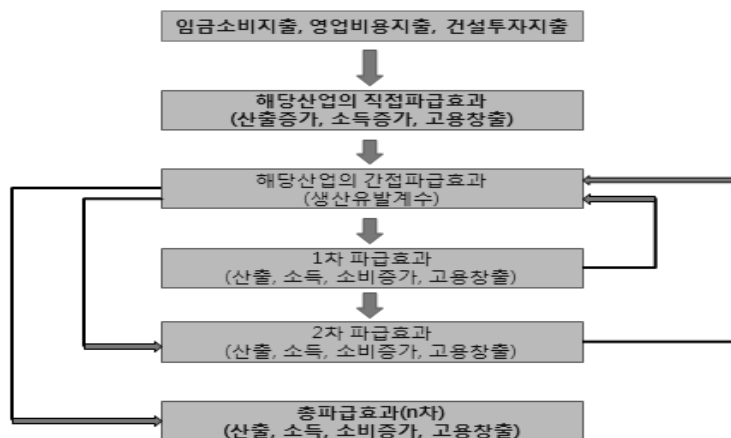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009)는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관의 경제활동에 따른 투자와 운영부문 등의 파급효과 경로파악을 통한 분석대상 설정하였음
- 분석대상은 건설투자부문과 입주기업 영업활동 부문으로 나뉘
 - 건설투자부문은 입주업체별 건설 및 설비투자계획에 따른 추정 사업비를 대상으로 하여 연차별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입주기업 영업활동부문은 입주기업 영업활동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투자 및 기업영업활동에 따른 파급효과로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를 분석함
- 또한 제주지역 GRDP 상승효과를 분석함

제2절 제주 이전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1. 분석 개요

- 제주이전기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의 목적은 해당기업이 제주에 이전한 이후 2011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실제적인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함에 있음
 -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유치 및 인구유입정책의 정책적인 수단으로 지역개발사업이나 시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파급효과 분석이 이뤄졌고 과잉투자과 지역자원의 낭비 등이 초래되어왔음
- 본 연구에서는 이전기업들이 손익계산서 자료를 토대로 제주이전 후 2011년까지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임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함
- 기업이전에 따른 건설투자의 증대, 임금의 소비지출, 영업비용의 소비지출 증대는 해당산업의 직접적인 생산증가, 생산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추가적인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게 됨
 - 즉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중간재 투입에 대한 수요 외에 노동, 자본 등 기초 투입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유발시키며, 해외 중간재 수요를 증대시켜 수입을 유발시킴¹⁾

<그림 III -1>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경로



자료 : 고성보(2004)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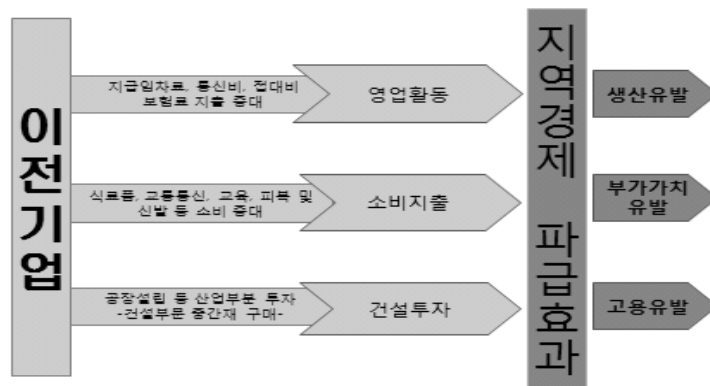
1) 한국개발연구원, ‘2002년 월드컵축구 한국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1995, pp50-54

- 해당산업의 생산 증가는 이 산업이 중간재를 사용한 산업의 생산증가를 초래하며, 이 과정에서 다시 부가가치와 고용을 유발하게 됨
- 그리고 이러한 직접 및 간접적인 파급효과는 생산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증가, 소비증가의 연쇄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파급됨
 - 즉 각 산업에 있어서의 생산증가는 그 생산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고, 그 결과 소비를 증대시키며, 이 소비증가가 다시 산업생산을 유발하는 연쇄과정으로 다른 산업에 n차까지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침
- 본 연구에서는 이전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소비지출효과, 영업활동효과, 건설효과 등 3가지로 항목화하여 분석모형 설정 필요성 검토
 - 기업이 이전하여 어떠한 효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항목평가를 거쳐 다음과 같이 분석모형 설정 필요

<표 Ⅲ-1> 분석모형 설정 판단

구분	개념	분석모형 설정 여부
소비지출 효과	기업직원들의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영업활동 효과	기업의 영업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건설효과 효과	건설비용의 지역 내 지출에 따른 효과	○

<그림 Ⅲ-2> 파급효과 분석 경로



- 파급효과 분석은 지역 및 국민경제의 흐름을 산업부문간의 투입 및 산출관계로 통해 동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가지고 분석하게 됨
 - 지역산업연관모형은 산업 제품에 대한 외부 수요와 지역간·산업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함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2009)이 발표한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함

2. 파급효과 분석 자료 확보 및 가공

- 파급효과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내역, 즉 투입자료 등은 다음과 같음
 -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급여(전체 합계 급여)금액을 파악하여 이를 투입요소로 함
 - 영업활동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영업비용을 기본자료로 하여 투입요소를 만들어내어 결과를 도출함
 - 건설 등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 투자계획에 나타난 설비·건설비용을 기본자료로 하여 건설파급효과를 도출함

〈표 III-2〉 분석에 필요한 자료확보 내용

기업	기업	자료 확보년도	비고
이전기업	한국BMI	2010-2011년	손익계산서
	이엠엘에스아이	2005-2011년	손익계산서
	키멘스전자	2007-2011년	손익계산서
	피엔아이시스템	2010-2011년	손익계산서
	보타메디	2007-2011년	손익계산서
쿨센터	다음서비스	2007-2011년	손익계산서
	넥슨네트웍스	2009-2011년	손익계산서
연수원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2011년	손익계산서

주) 신규 시설임대 기업이거나 본사가 아닌 이유로 지역자료가 없는 이전기업의 경우 자료 확보가 안 되었고, 고용실적이 없거나 이전한지 1년이 안된 기업으로 단일분석이 불가한 점<참조 부록 1>은 이번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음

1)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가공

-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손익계산서상의 급여내역을 확보하여 이를 투입요소로 하되, 본 연구에서는 급여의 50%를 소비지출한다는 가정하에 소비지출액을 산정하였음(고정보,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 2004)
 - 분석대상 8개사의 급여액을 총합산한 결과, 총급여액은 653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50%인 326억 원이 소비지출된 것으로 가정하였음
- 이러한 급료는 지역에서의 식료품 지출 등 급료의 일정비율이 소비지출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파급효과를 갖게 됨
- 이전기업 근로자의 총근로소득은 급여를 비롯하여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여 합산하였고, 전체의 근로소득 중 얼마만큼 소비지출로 이어질지는 절반정도 소비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음
 - 이러한 소득의 항목별 지출은 2004년 1/4분기에서 2008년 3/4분기까지의 도시근로자 가계의 분기별 소비항목별 지출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표 Ⅲ-3〉 도시근로자 가계의 분기별 소비항목별 지출비율

분기별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의류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소비
2004/1	0.244	0.028	0.061	0.036	0.049	0.041	0.138	0.051	0.167	0.183
2004/2	0.275	0.034	0.046	0.036	0.057	0.049	0.096	0.046	0.188	0.171
2004/3	0.285	0.032	0.033	0.041	0.043	0.043	0.130	0.052	0.172	0.169
2004/4	0.284	0.034	0.044	0.045	0.059	0.047	0.090	0.048	0.180	0.169
2005/1	0.243	0.030	0.063	0.041	0.048	0.047	0.139	0.046	0.168	0.174
2005/2	0.272	0.035	0.048	0.046	0.059	0.051	0.094	0.049	0.177	0.169
2005/3	0.272	0.034	0.032	0.044	0.044	0.048	0.135	0.055	0.178	0.159
2005/4	0.278	0.032	0.044	0.046	0.063	0.048	0.094	0.049	0.175	0.170
2006/1	0.241	0.030	0.064	0.039	0.051	0.047	0.140	0.050	0.158	0.179
2006/2	0.260	0.037	0.047	0.045	0.057	0.050	0.095	0.047	0.185	0.176
2006/3	0.265	0.039	0.034	0.046	0.046	0.049	0.136	0.052	0.189	0.145
2006/4	0.269	0.036	0.040	0.050	0.061	0.047	0.089	0.047	0.178	0.183
2007/1	0.232	0.032	0.058	0.041	0.050	0.046	0.141	0.046	0.175	0.178

<표 III -3> 도시근로자 가계의 분기별 소비항목별 지출비율(계속)

분기별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의류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소비
2007/2	0.256	0.033	0.046	0.048	0.059	0.048	0.101	0.051	0.188	0.170
2007/3	0.259	0.032	0.032	0.045	0.043	0.048	0.138	0.057	0.178	0.167
2007/4	0.263	0.035	0.044	0.048	0.064	0.048	0.098	0.049	0.177	0.173
2008/1	0.229	0.028	0.062	0.039	0.050	0.046	0.148	0.049	0.169	0.180
2008/2	0.259	0.036	0.045	0.044	0.059	0.045	0.110	0.048	0.188	0.166
2008/3	0.264	0.032	0.032	0.045	0.042	0.049	0.154	0.050	0.169	0.162
2008/4	0.267	0.035	0.042	0.048	0.060	0.052	0.107	0.044	0.168	0.176
합계	5.220	0.665	0.919	0.875	1.066	0.950	2.374	0.986	3.527	3.419
평균	0.261	0.033	0.046	0.044	0.053	0.047	0.119	0.049	0.176	0.171

자료 :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

○ 위의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추정된 임금지출 증대에 따른 소비 항목별 지출액 추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항목별 소비지출액 : 총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항목별 소비지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식료품 항목이 85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통통신 58억 원, 기타소비 56억 원, 교육 39억 원, 의류 및 신발 17억 원, 교양오락 16억 원, 보건의료 15억 원, 광열수도 15억 원, 주거 10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III -4> 임금지출 증대에 따른 소비항목별 지출액 추정

(단위: 천 원)

구분	식료품	주거	광열수 도	가구 집기 가사 용품	의류 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소비	합계
평균 비율	0.261	0.033	0.046	0.046	0.053	0.047	0.119	0.049	0.176	0.171	100%
소비 지출액 합계	8,523,890	1,086,172	1,501,138	1,429,195	1,740,993	1,550,717	3,876,339	1,610,004	5,759,157	5,583,696	32,661,305

○ 이러한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주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산업연관모형의 28개 부분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함

- 교통비는 운수 및 보관 부문, 식료품은 음식료품 부문, 피복 및 신발은 섬유 및 가죽제품 부문, 보건의료교육은 교육 및 보건부문, 교통 및 통신은 운수 및 보관 부문, 통신 및 방송 부문에 각각 50%씩 나누고, 광열 및 주거비는 전력가스 및 수도 부문, 가구 및 집기사용품은 기타제조업제품 부문, 교양오락 및 기타부문은 사회 및 기타서비스 부문으로 재분류되었음

- 분석대상 8개 기업이 제주이전 후 2011년까지 총소비지출액 326억 원을 산업연관표상 부문별로 분류하면, 음식료품부분이 85억 원으로 전체의 26.1%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회 및 기타서비스 71억 원, 교육 및 보건의 54억 원,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이 각각 28억 원, 섬유 및 가죽제품이 17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Ⅲ -5> 임금소비 지출의 산업연관표상 분류

(단위 : 천 원)

구분	음식료품	운수 및 보관	섬유 및 가죽제품	교육 및 보건	통신 및 방송	전력가스 및 수도	기타제조업제품	사회 및 기타서비스	합계
소비 지출액	8,523,890	2,879,578	1,740,993	5,427,056	2,879,578	2,587,310	1,429,195	7,193,700	32,661,305

2) 영업활동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가공

- 영업활동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영업비용을 가려내고 투입요소를 만들어내어 결과를 도출함
-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접대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차량유지비 등의 형태로 지역에 지출행위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을 영업비용 지출로 정의하고자 함
- 영업활동비용 항목으로 취급한 것은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운반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행사비 등 지역성이 강하고 직접적인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것들임
- 분석대상 8개사의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 지출액을 항목별로 나눠 합산한뒤 총 영업비용을 계산한 결과, 307억 원으로 집계되었음

- 항목별 영업비용 지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지급임차료가 117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여비교통비가 55억 원, 보험료가 22억 원, 운반비가 19억 원, 접대비가 17억 원, 광고선전비가 14억 원, 행사비가 11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음
- 중요항목의 비율 : 지급임차료, 여비교통비, 보험료 등
- 각각상각비는 직접 비용지출을 수반하지 않고,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제주 현지에서 구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음

〈표 III-6〉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용 지출액

(단위 : 천 원)

항 목	지출금액	비 율
5.여비교통비	5,506,528	0.179
6.접 대 비	1,701,486	0.055
7.통 신 비	1,086,259	0.035
8.광 고선전비	1,423,660	0.046
9.수도광열비	356,364	0.011
10.지급임차료	11,718,588	0.381
11.수 선 비	747,754	0.024
12.보 험 료	2,150,894	0.069
13.차량유지비	909,436	0.029
14.운 반 비	1,927,374	0.062
15.교육훈련비	629,034	0.020
16.도서인쇄비	885,276	0.028
17.소모품비	555,303	0.018
18.행 사 비	1,142,734	0.037
합 계	30,740,697	1.000

- 이러한 영업비용 지출 증대가 지역경제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주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산업연관모형의 28개 부문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함(고성보,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004)
- 도서인쇄비는 인쇄 출판 및 복제부문, 수도광열비는 전력가스 및 수도부문, 소모품비는 도소매부문, 여비교통비, 운반비는 운수 및 보관

부문, 통신비는 통신 및 방송부문, 보험료는 금융 및 보험, 광고선전비와 지급임차료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교육훈련비는 교육 및 보건부문, 행사비, 수선비, 차량유지비, 접대비는 사회 및 기타서비스부문으로 재분류하였음

- 주요항목의 비율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부문, 운수 및 보관부문, 사회 및 기타서비스부문, 금융 및 보험, 통신 및 방송부문으로 나타남

- 분석대상 8개 기업이 제주이전 후 2011년까지 영업비용 총지출액 307억 원을 산업연관표상 부문별로 분류하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부문이 131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운수 및 보관이 74억 원, 사회 및 기타서비스 45억 원, 금융 및 보험이 21억 원, 통신 및 방송이 11억 원, 인쇄출판 및 복제가 9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Ⅲ-7> 영업비용 지출액의 산업연관표상 분류

(단위 : 천 원)

구	분	영업비용지출액
인	쇄출판 및 복제	885,276
전	력가스 및 수도	356,365
운	수 및 보관	7,433,903
통	신 및 방 송	1,086,259
금	융 및 보 험	2,150,895
부	동산 및 사업서비스	13,142,249
교	육 및 보 건	629,035
사	회 및 기타서비스	4,501,411
기	타	555,304
합	계	30,740,697

3) 건설 등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가공

- 건설 등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투자계획을 기본자료로 하여 건설 등 설비 파급효과를 도출함
- 분석대상 8개 기업의 투자계획서에 나타난 건설비용을 추산하여 이를 합산한 결과, 총건설비용이 1,315억 원으로 나타남
- 이전기업이 제주에 사무실이나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투자되는 사업비가 지역 내 투자될 경우 지역경제에 정(+)의 효과를 발생시킴

- 공장이나 사무실 건설을 위한 투자 지출은 건설 산업 및 관련 산업의 중간재 수요를 단기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발생시킴
- 이러한 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모형 설정이 필요함
- 이러한 건설수요 변화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효과로 나타남

4. 지역산업연관분석

1) 산업연관분석의 의의

-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그 생산과정에서 각 산업은 원재료의 거래관계를 토대로 직접, 간접으로 연관을 맺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이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
- 산업연관분석은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인 산업연관표의 작성으로부터 출발
- 산업연관분석은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 고용, 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어 산업구조정책방향 설정이나 조정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2) 지역산업연관표의 의의

- 지역산업연관표는 각 지역의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수량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단위의 경제 및 산업구조 분석과 경제정책 수립 및 효과분석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됨

3) 지역산업연관표의 구조

- 지역산업연관표는 포괄하는 지역의 수에 따라 지역 내 산업연관표와 지역간 산업연관표로 구분되는데 지역 내 산업연관표는 한 지역의 생산기술구조를 나타낸 표로 전국산업연관표와 같은 형식을 취함
-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두 개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생산물의 지역간 및 산업간 거래관계를 이출입을 다리로 하여 하나로 나타낸 표인데 예를 들어 지역1(제주지역)과 지역2(기타지역) 등 두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그림 III-3>과 같음

<그림 III-3> 두 지역 지역간산업연관표와 지역간 투입계수표

		중 간 수 요		최 종 수 요		지역내 산출액
		지역 1	지역 2	지역 1	지역 1	
국산	지역 1	Z_{11}	Z_{12}	Y_{11}^d	Y_{12}^d	X_1
투입	지역 2	Z_{21}	Z_{22}	Y_{21}^d	Y_{22}^d	X_2
수 입 투 입		M_1	M_2	Y_1^m	Y_2^m	
부 가 가 치		V_1	V_2			
지역내 산출액		X_1	X_2			

➡

		중 간 수 요	
		지역 1	지역 2
국산	지역 1	A_{11}^d	A_{12}^d
투입	지역 2	A_{21}^d	A_{22}^d
수 입 투 입		A_1^m	A_2^m
부 가 가 치		A_1^v	A_2^v
지역내 산출액		1	1

4) 지역산업연관분석에 사용되는 각종 계수

(1) 투입계수

- 투입계수는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각종 중간재 및 부가가치의 구성비를 나타내며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중간투입계수와 부가가치를 총투입액으로 나눈 부가가치계수로 구분되며 투입계수는 최종수요에 의한 산업간 및 지역간 파급효과분석의 기초가 됨
- 투입계수표는 각 산업의 해당부문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및 연료 등의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투입계수를 산업연관표의 내생부문과 같은 모양으로 배열한 행렬
- 제주지역산업연관분석표는 다지역산업연관모형으로서 제주지역과 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2지역 28개산업으로 구성하였음

-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은 투입요소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각 지역산업의 투입액을 나타내는 표로서 원산지를 구별하는 작업보다 상대적으로 작성이 용이하며, 최종생산물의 지역간 교역자료로서 생산물이 어느 산업에 투입되었는지 또는 중간수요인지 최종수요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음

(2) 생산유발계수

-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나타내는 것
 - 도출과정에서 역행렬이라고 하는 수학적 방법이 이용되므로 역행렬 계수라고도 함
- 생산유발계수를 미리 계산해 두면 최종수요의 변동에 따라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총산출액을 구할 수 있게 됨
- 지역간 산업연관표에서 각 지역의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중간수요(Z)와 최종수요(Y)로 배분됨

(3) 부가가치유발계수

- 산업연관표에서는 공급능력이나 노동력은 항상 충분하다는 가정하에서 최종수요의 변동이 국내생산의 변동을 유발하고, 생산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수요의 변동이 부가가치 변동의 원천이라고 간주함
 - 따라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와 생산수준간의 연관관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와의 기능적인 관계도 파악할 수 있음

(4) 수입유발계수

-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중간재는 국산품뿐만 아니라 수입품에 의해서도 충당되므로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생산유발은 국산품생산유발과 수입품유발로 나누어지게 됨
- 따라서 최종수요와 생산이나 부가가치를 연결시켜 그 기능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종수요와 수입을 관련시켜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수입유발효과도 계측할 수 있음

(5) 노동유발계수

- 노동계수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 산출액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 단위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
 - 노동생산성과는 역수관계에 있음
- 피용자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노동계수를 취업계수라 하고, 노동량에 피용자만 포함한 노동계수는 고용계수라 함
-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은 중간재에 노동이나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경합함으로써 이루어짐
- 따라서 생산활동에 따른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동이나 노동의 산업간 유발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본원적 생산요소인 노동에 대한 장래 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5. 이전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지역산업연관분석

-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에 이전한 8개사가 제주지역 및 전국의 산업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한국은행에서 2008년에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의 28개 분류에 맞추어 적절한 항목으로 분류한 후 분석하였음

1)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생산유발 효과

- 제주이전 8개 기업의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총소비지출 326억 원이 제주지역의 생산에는 406억 원의 유발을 가져오고,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는 211억 원의 생산유발을 가져와 전국으로는 총 61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옴
 - 이는 제주지역의 경우 투입액의 1.25배, 타 지역의 경우 투입액의 0.65배, 전국으로는 총 1.89배의 생산파급효과를 나타냄
- 제주지역의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음식료품, 사회 및 기타 서비스, 교육 및 보건, 통신 및 방송, 운수인 것으로 나타남

- 타 지역에 미친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화학제품, 농림수산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8> 생산유발 효과

(단위 : 천 원)

구분	제주지역	타 지역	전지역
농 립 수 산 품	2,237,045	2,197,636	4,434,680
광 산 품	2,642	36,758	39,400
음 식 료 품	8,730,997	1,001,380	9,732,377
섬유 및 가죽제품	1,741,305	1,001,782	2,743,087
목재 및 종이제품	16,798	533,470	550,268
인쇄 및 복제	40,206	179,426	219,631
석유 및 석탄제품	1,626	1,879,384	1,881,010
화 학 제 품	62,719	3,127,651	3,190,369
비금속광물제품	20,695	170,086	190,781
제1차금속제품	5,745	730,476	736,221
금속제품	9,972	381,637	391,609
일반기계	2,046	264,835	266,882
전기 및 전자기기	3,973	533,450	537,423
정밀기기	903	72,184	73,087
수송장비	255	889,944	890,199
기타제조업제품	1,433,808	208,214	1,642,021
전력, 가스 및 수도	2,958,786	1,108,910	4,067,696
건설	116,876	146,628	263,504
도소매	380,700	1,612,518	1,993,217
음식점 및 숙박	238,916	416,237	655,153
운수	3,237,460	869,233	4,106,694
통신 및 방송	3,631,625	481,003	4,112,628
금융 및 보험	536,130	722,721	1,258,85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210,662	1,831,433	3,042,096
공공행정 및 국방	23,664	9,238	32,902
교육 및 보건	5,594,383	108,632	5,703,015
사회 및 기타 서비스	7,359,119	345,552	7,704,671
기 타	1,069,028	335,125	1,404,153
합 계	40,668,083	21,195,543	61,863,626

(2) 부가가치유발

- 제주지역 기술개발사업비가 제주지역에는 234억 원의 부가가치유발을 가져오고,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는 48억 원의 부가가치유발을 가져와 전국으로는 총 283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가져옴

- 이는 제주지역의 경우 투입액의 0.71배, 타 지역의 경우 투입액의 0.15배, 전국으로는 총 0.86배의 부가가치창출효과를 나타냄

○ 제주지역의 경우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사회 및 기타서비스, 교육 및 보건, 음식료품, 통신 및 방송, 운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에 미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화학제품, 음식료품, 농림수산물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Ⅲ-9> 부가가치유발 효과

(단위 : 천 원)

구 분	제주지역	타 지역	전지역
농 립 수 산 품	1,404,663	466,445	1,871,108
광 산 품	1,800	6,190	7,990
음 식 료 품	3,748,185	372,598	4,120,783
섬 유 및 가 죽 제 품	506,177	409,655	915,832
목 재 및 종 이 제 품	5,933	190,247	196,179
인 쇄 및 복 제	21,421	53,048	74,469
석 유 및 석 탄 제 품	155	113,801	113,956
화 학 제 품	19,761	738,616	758,377
비 금 속 광 물 제 품	8,528	59,129	67,657
제 1 차 금 속 제 품	491	215,914	216,406
금 속 제 품	3,051	150,347	153,398
일 반 기 계	599	104,011	104,611
전 기 및 전 자 기 기	763	64,911	65,674
정 밀 기 기	284	19,510	19,794
수 송 장 비	86	295,033	295,119
기 타 제 조 업 제 품	612,435	71,268	683,703
전 력, 가 스 및 수 도	1,638,199	167,869	1,806,068
건 설	61,493	42,496	103,989
도 소 매	284,385	273,717	558,101
음 식 점 및 숙 박	138,426	115,338	253,763
운 수	1,643,673	183,215	1,826,888
통 신 및 방 송	2,312,454	123,813	2,436,267
금 융 및 보 험	411,011	125,041	536,052
부 동 산 및 사 업 서 비 스	978,737	258,355	1,237,093
공 공 행 정 및 국 방	18,467	1,327	19,794
교 육 및 보 건	4,274,976	15,724	4,290,700
사 회 및 기 타 서 비 스	5,071,787	71,435	5,143,222
기 타	255,729	175,315	431,043
합 계	23,423,668	4,884,368	28,308,036

(3) 고용유발

- 제주지역 기술개발사업비가 제주지역에는 608명의 고용유발을 가져오고,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는 232명의 고용유발을 가져와 전국으로 총 84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옴
 - 이는 제주지역의 경우 10억 원당 18.6명, 타 지역의 경우 10억 원당 7.명, 전국으로서는 10억 원당 25.7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냄
- 제주지역의 경우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섬유 및 가죽제품,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 교육 및 보건, 농림수산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에 미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농림수산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운수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10> 고용유발 효과

(단위 : 명)

구 분	제주지역	타 지역	전지역
농 립 수 산 품	45.02	98.95	143.97
광 산 품	0.02	0.21	0.23
음 식 료 품	40.14	3.71	43.85
섬 유 및 가 죽 제 품	151.03	9.04	160.07
목 재 및 종 이 제 품	0.20	2.68	2.87
인 쇄 및 복 제	0.46	1.67	2.12
석 유 및 석 탄 제 품	0.01	0.33	0.34
화 학 제 품	0.38	9.00	9.38
비 금 속 광 물 제 품	0.12	0.73	0.84
제 1 차 금 속 제 품	0.07	0.76	0.83
금 속 제 품	0.05	2.62	2.67
일 반 기 계	0.02	1.29	1.31
전 기 및 전 자 기 기	0.01	1.81	1.82
정 밀 기 기	0.04	0.53	0.56
수 송 장 비	0.01	2.59	2.59
기 타 제 조 업 제 품	40.83	1.79	42.62
전 력, 가 스 및 수 도	6.11	1.64	7.75
건 설	1.20	1.55	2.76
도 소 매	14.50	42.13	56.63
음 식 점 및 숙 박	6.33	10.37	16.70
운 수	41.13	11.10	52.23

<표 Ⅲ-10> 고용유발 효과(계속)

(단위 : 명)

구 분	제주지역	타 지역	전지역
통 신 및 방 송	14.27	1.48	15.75
금 융 및 보 험	5.07	4.71	9.7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8.14	14.12	22.26
공 공 행 정 및 국 방	0.26	0.10	0.36
교 육 및 보 건	99.28	1.74	101.01
사 회 및 기 타 서 비 스	133.56	5.29	138.86
기 타	0.00	0.00	0.00
합 계	608.25	231.93	840.18

2) 영업비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생산유발

○ 제주이전 8개 기업의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총영업비용지출 327억 원이 제주지역의 생산에는 368억 원의 유발을 가져오고,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는 139억 원의 생산유발을 가져와 전국으로는 총 50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옴

- 이는 제주지역의 경우 투입액의 1.19배, 타 지역의 경우 투입액의 0.45배, 전국으로는 총 1.65배의 생산파급효과를 나타냄

○ 제주지역의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운수, 사회 및 기타서비스, 금융 및 보험인 것으로 나타남

○ 타 지역에 미친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석유 및 석탄제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금융 및 보험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Ⅲ-11> 생산유발-영업비용

(단위 : 천 원)

구 분	제주지역	타 지역	전지역
농 립 수 산 품	81,117	216,346	297,462
광 산 품	4,410	22,526	26,935
음 식 료 품	90,955	372,884	463,839
섬 유 및 가 죽 제 품	228	161,367	161,595
목 재 및 종 이 제 품	14,128	415,429	429,557
인 쇄 및 복 제	948,216	252,356	1,200,572

〈표 III -11〉 생산유발-영업비용(계속)

(단위 : 천 원)

구 분	제주지역	타 지역	전지역
석유 및 석탄제품	1,597	1,999,442	2,001,039
화학제품	8,201	958,522	966,723
비금속광물제품	36,055	105,124	141,179
제1차금속제품	(1,665)	456,380	454,716
금속제품	5,545	245,612	251,157
일반기계	935	201,286	202,222
전기 및 전자기기	2,639	418,422	421,061
정밀기기	487	46,929	47,416
수송장비	272	882,023	882,296
기타제조업제품	4,104	128,753	132,857
전력, 가스 및 수도	724,326	742,822	1,467,148
건설	540,315	326,257	866,572
도소매	144,622	708,783	853,405
음식점 및 숙박	320,850	454,150	775,000
운수	7,755,702	778,369	8,534,071
통신 및 방송	1,791,085	474,965	2,266,050
금융 및 보험	3,155,539	1,404,018	4,559,55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4,293,153	1,503,641	15,796,794
공공행정 및 국방	45,320	7,318	52,638
교육 및 보건	745,860	71,530	817,390
사회 및 기타 서비스	4,683,066	359,832	5,042,898
기타	1,446,774	215,281	1,662,055
합계	36,843,837	13,930,366	50,774,203

(2) 부가가치유발

- 제주이전의 총 영업비용 지출은 제주지역에는 248억 원의 부가가치유발을 가져오고,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는 3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을 가져와 전국으로는 총 278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가져옴
 - 이는 제주지역의 경우 투입액의 0.8배, 타 지역의 경우 투입액의 0.1배, 전국으로는 총 0.9배의 부가가치창출효과를 나타냄
- 제주지역의 경우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에 미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수송장비업, 금융 및 보험업, 화학제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Ⅲ-12> 부가가치유발 효과

(단위 : 천 원)

구 분	제주지역	타 지역	전지역
농 립 수 산 품	50,934	45,919	96,853
광 산 품	3,005	3,793	6,798
음 식 료 품	39,047	138,744	177,791
섬 유 및 가 죽 제 품	66	65,987	66,053
목 재 및 종 이 제 품	4,989	148,151	153,140
인 쇄 및 복 제	505,185	74,611	579,795
석 유 및 석 탄 제 품	152	121,071	121,223
화 학 제 품	2,584	226,362	228,946
비 금 속 광 물 제 품	14,857	36,546	51,403
제 1 차 금 속 제 품	-142	134,897	134,755
금 속 제 품	1,697	96,759	98,456
일 반 기 계	274	79,053	79,327
전 기 및 전 자 기 기	507	50,914	51,421
정 밀 기 기	153	12,684	12,837
수 송 장 비	92	292,407	292,499
기 타 제 조 업 제 품	1,753	44,070	45,823
전 력, 가 스 및 수 도	401,040	112,450	513,489
건 설	284,278	94,557	378,835
도 소 매	108,034	120,312	228,346
음 식 점 및 숙 박	185,898	125,843	311,741
운 수	3,937,604	164,063	4,101,667
통 신 및 방 송	1,140,482	122,258	1,262,740
금 융 및 보 험	2,419,117	242,915	2,662,032
부 동 산 및 사 업 서 비 스	11,555,032	212,114	11,767,146
공 공 행 정 및 국 방	35,367	1,051	36,419
교 육 및 보 건	569,953	10,353	580,306
사 회 및 기 타 서 비 스	3,227,493	74,387	3,301,881
기 타	346,091	112,621	458,712
합 계	24,835,541	2,964,893	27,800,433

(3) 고용유발

○ 이전기업의 총영업비용 지출은 제주지역에는 364명의 고용유발을 가져오고,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는 101명의 고용유발을 가져와 전국으로는 총 465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옴

- 이는 제주지역의 경우 10억 원당 11.8명, 타 지역의 경우 10억 원당 3.2명, 전국으로는 10억 원당 15.1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냄

- 제주지역의 경우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운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에 미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도소매업, 부동산 및 기타서비스업, 음식점 및 숙박업, 운수업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13> 고용유발 효과

(단위 : 명)

구 분	제주지역	타 지역	전지역
농 립 수 산 품	1.63	9.74	11.38
광 산 품	0.03	0.12	0.15
음 식 료 품	0.42	1.36	1.77
섬유 및 가죽제품	0.02	1.39	1.41
목재 및 종이제품	0.17	1.83	2.00
인쇄 및 복제	10.78	2.34	13.12
석유 및 석탄제품	0.01	0.34	0.35
화학제품	0.05	2.73	2.78
비금속광물제품	0.20	0.45	0.66
제1차금속제품	-0.02	0.47	0.45
금속제품	0.03	1.65	1.68
일반기계	0.01	0.97	0.98
전기 및 전자기기	0.01	1.44	1.45
정밀기기	0.02	0.34	0.36
수송장비	0.01	2.65	2.66
기타제조업제품	0.12	1.10	1.21
전력, 가스 및 수도	1.50	1.11	2.60
건설	5.56	3.47	9.02
도소매	5.51	18.30	23.81
음식점 및 숙박	8.51	11.28	19.79
운수	98.54	10.02	108.56
통신 및 방송	7.04	1.42	8.45
금융 및 보험	29.81	8.44	38.2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96.12	11.66	107.78
공공행정 및 국방	0.49	0.08	0.57
교육 및 보건	13.24	1.14	14.37
사회 및 기타 서비스	85.00	5.31	90.30
기타	0.00	0.00	0.00
합 계	364.78	101.14	465.92

3) 건설비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생산유발

- 제주이전 8개 기업의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총건설비용 533억 원은 제주지역의 생산에는 663억 원의 유발을 가져오고,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는 463억 원의 생산유발을 가져와 전국으로는 총 1,08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옴
 - 이는 제주지역의 경우 투입액의 1.16배, 타 지역의 경우 투입액의 0.86배, 전국으로는 총 2.03배의 생산파급효과를 나타냄
- 제주지역의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건설업, 비금속광물제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기타인 것으로 나타남
- 타 지역에 미친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제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화학제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14> 생산유발 효과

(단위 : 천 원)

구 분	제주지역	타 지역	전지역
농 립 수 산 품	97,137	284,692	381,830
광 산 품	354,400	386,967	741,366
음 식 료 품	46,327	366,405	412,732
섬유 및 가죽제품	170	297,603	297,773
목재 및 종이제품	15,858	1,118,607	1,134,465
인쇄 및 복제	14,993	136,877	151,870
석유 및 석탄제품	11,326	2,936,444	2,947,770
화 학 제 품	57,016	3,675,957	3,732,973
비금속광물제품	2,960,228	2,470,593	5,430,821
제 1 차 금 속 제 품	(56,708)	9,904,779	9,848,070
금 속 제 품	173,276	5,322,540	5,495,815
일 반 기 계	19,960	2,783,611	2,803,571
전기 및 전자기기	30,280	3,248,509	3,278,789
정 밀 기 기	1,265	186,550	187,815
수 송 장 비	39	481,534	481,573
기 타 제 조 업 제 품	5,804	382,527	388,331
전력, 가스 및 수도	126,348	1,099,698	1,226,046
건 설	53,415,239	186,234	53,601,473
도 소 매	430,174	2,491,330	2,921,504
음식점 및 숙박	168,409	494,383	662,791

<표 III -14> 생산유발 효과(계속)

(단위 : 천 원)

구 분	제주지역	타 지역	전지역
운 수	647,513	1,703,456	2,350,969
통 신 및 방 송	296,804	543,130	839,934
금 융 및 보 험	651,020	1,399,258	2,050,27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652,988	3,245,251	4,898,239
공 공 행 정 및 국 방	10,053	19,255	29,308
교 육 및 보 건	171,945	184,009	355,954
사 회 및 기 타 서 비 스	243,238	315,247	558,485
기 타	735,136	685,232	1,420,368
합 계	62,280,236	46,350,677	108,630,913

(2) 부가가치유발

- 제주이전 8개 기업의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총건설비용 533억 원은 제주지역에는 331억 원의 부가가치유발을 가져오고,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는 12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을 가져와 전국으로는 총 451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가져옴
 - 이는 제주지역의 경우 투입액의 0.62배, 타 지역의 경우 투입액의 0.23배, 전국으로는 총 0.85배의 부가가치창출효과를 나타냄
- 제주지역의 경우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건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비금속광물제품, 금융 및 보험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에 미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제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기, 화학제품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 -15> 부가가치유발 효과

(단위 : 천 원)

구 분	제주지역	타 지역	전지역
농 립 수 산 품	60,993	60,426	121,419
광 산 품	241,486	65,161	306,647
음 식 료 품	19,888	136,334	156,221
섬 유 및 가 죽 제 품	49	121,698	121,747
목 재 및 종 이 제 품	5,601	398,919	404,520
인 쇄 및 복 제	7,988	40,468	48,457
석 유 및 석 탄 제 품	1,081	177,809	178,890
화 학 제 품	17,964	868,103	886,067
비 금 속 광 물 제 품	1,219,794	858,883	2,078,677

<표 Ⅲ-15> 부가가치유발 효과(계속)

(단위 : 천 원)

구 분	제주지역	타 지역	전지역
제 1 차 금 속 제 품	(4,851)	2,927,657	2,922,806
금 속 제 품	53,023	2,096,823	2,149,846
일 반 기 계	5,844	1,093,235	1,099,079
전 기 및 전 자 기 기	5,813	395,283	401,096
정 밀 기 기	398	50,420	50,818
수 송 장 비	13	159,637	159,650
기 타 제 조 업 제 품	2,479	130,933	133,412
전 력, 가 스 및 수 도	69,955	166,474	236,430
건 설	28,103,591	53,975	28,157,566
도 소 매	321,342	422,891	744,233
음 식 점 및 숙 박	97,574	136,992	234,566
운 수	328,745	359,050	687,796
통 신 및 방 송	188,991	139,804	328,796
금 융 및 보 험	499,088	242,091	741,18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336,327	457,799	1,794,126
공 공 행 정 및 국 방	7,845	2,766	10,611
교 육 및 보 건	131,393	26,634	158,027
사 회 및 기 타 서 비 스	167,636	65,170	232,806
기 타	175,856	358,468	534,324
합 계	33,065,909	12,013,903	45,079,813

(3) 고용유발

- 제주이전 8개 기업의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총건설비용 533억 원은 제주지역에는 627명의 고용유발을 가져오고,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는 266명의 고용유발을 가져와 전국으로는 총 893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옴
 - 이는 제주지역의 경우 10억 원당 11.8명, 타 지역의 경우 10억 원당 4.9명, 전국으로는 10억 원당 16.8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냄
- 제주지역의 경우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에 미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도소매업, 금속제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통신 및 방송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Ⅲ-16〉 고용유발 효과

(단위 : 명)

구 분	제주지역	타 지역	전지역
농 립 수 산 품	1.95	12.74	14.70
광 산 품	2.07	2.10	4.16
음 식 료 품	0.21	1.37	1.58
섬 유 및 가 죽 제 품	0.01	2.52	2.53
목 재 및 종 이 제 품	0.19	5.81	6.00
인 쇄 및 복 제	0.17	1.27	1.44
석 유 및 석 탄 제 품	0.09	0.55	0.63
화 학 제 품	0.35	10.43	10.78
비 금 속 광 물 제 품	16.55	10.29	26.84
제 1 차 금 속 제 품	(0.64)	9.79	9.15
금 속 제 품	0.94	34.00	34.95
일 반 기 계	0.15	13.45	13.60
전 기 및 전 자 기 기	0.07	11.41	11.48
정 밀 기 기	0.05	1.33	1.38
수 송 장 비	0.00	1.46	1.46
기 타 제 조 업 제 품	0.17	3.01	3.17
전 력, 가 스 및 수 도	0.26	1.64	1.90
건 설	549.26	1.96	551.22
도 소 매	16.39	64.13	80.52
음 식 점 및 숙 박	4.46	12.41	16.87
운 수	8.23	21.75	29.98
통 신 및 방 송	1.17	1.71	2.87
금 융 및 보 험	6.15	8.94	15.09
부 동 산 및 사 업 서 비 스	11.12	24.34	35.45
공 공 행 정 및 국 방	0.11	0.20	0.31
교 육 및 보 건	3.05	2.95	6.00
사 회 및 기 타 서 비 스	4.41	5.04	9.46
기 타	0.00	0.00	0.00
합 계	626.94	266.60	893.54

(4) 분석대상 이외의 이전기업의 건설비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 본 연구에서 고용실적이 없거나 이전한지 1년이 안되었거나 본사가 아니어서 지역자료가 없는 (주)이스트소프트 등 14개사 이전기업의 건설비용 1,068억 원은 제주지역의 생산에는 1,247억 원의 유발을 가져오고,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는 927억 원의 생산유발을 가져와 전국으로는 총 2,17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옴

- 이는 제주지역의 경우 투입액의 1.16배, 타 지역의 경우 투입액의 0.86배, 전국으로는 총 2.03배의 생산파급효과를 나타냄
-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에는 662억 원의 부가가치유발을 가져오고,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는 24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을 가져와 전국으로는 총 902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가져옴
- 이는 제주지역의 경우 투입액의 0.62배, 타 지역의 경우 투입액의 0.23배, 전국으로는 총 0.85배의 부가가치창출효과를 나타냄
-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에는 1,255명의 고용유발을 가져오고,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는 533명의 고용유발을 가져와 전국으로는 총 1,788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옴
- 이는 제주지역의 경우 10억 원당 11.8명, 타 지역의 경우 10억 원당 4.9명, 전국으로는 10억 원당 16.8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냄

<그림 Ⅲ-4>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이스트소프트건축현장



<그림 Ⅲ-5> 한라수목원 입구 (주)NXC
공사현장



4) 분석 요약

- 본 분석결과는 제주 이전기업 8개사가 이전 후 2011년까지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쳤는지를 분석한 것으로 첫째 임금소비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둘째 영업활동비용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셋째 공장 및 사무실 건설 등에 투자한 건설비용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첫째, 임금 소비지출(급여의 50%를 지출한 시나리오 1)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406억 원, 부가가치유발 234억 원, 고용유발 608명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둘째, 영업비용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368억 원, 부가가치유발 248억 원, 고용유발 364명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셋째, 건설비용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663억 원, 부가가치유발 331억 원, 고용유발 896명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III-17> 제주 이전기업 8개사가 2011년까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총합

구 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소비지출	시나리오1	406억 원	234억 원	608명
	시나리오2	571억 원	324억 원	848명
영업활동		368억 원	248억 원	364명
건 설		663억 원	331억 원	896명
전체	시나리오1	1,437억 원	813억 원	1,868명
	시나리오2	1,602억 원	903억 원	2,108명
기업 1개사 당	시나리오1	179억 원	102억 원	233명
	시나리오2	200억 원	113억 원	263명

주1) 본 연구에서 소비지출 파급효과 분석결과중 시나리오 1은 급여의 50%를 소비지출했다고 전제하고 분석한 것이고, 시나리오 2는 급여의 70%를 소비지출했다고 전제하고 분석한 것임

주2) 분석대상이 아니었어도 투자계획서상 건설비용 지출이 있는 기업체들의 파급효과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는 1,247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62억 원, 고용유발효과 1,255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이전기업의 건설효과는 대폭 증대될 것임

- 종합적으로 기업유치에 따라 분석대상 8개사가 2011년까지 직원임금 소비지출, 영업비용지출, 건설투자 증대에 따른 전체적인 효과(시나리오1)는 총생산유발효과 1,437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12억 원, 고용유발효과 1,868명임
 - 시나리오 2의 경우, 총생산유발효과 1,602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903억 원, 고용유발효과 2,108명임
- 기업 1개사당 평균 지역경제 파급효과(시나리오 1)는 생산유발효과 17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2억 원, 고용 233명인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 2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2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13억 원, 고용 263명인 것으로 나타남

Ⅳ. 제주 이전기업 의견 조사

제1절 선행 조사 사례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6월 수도권 등 도외에서 제주에 둥지를 튼 이전기업 및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관심도 제고 및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했음

제2절 제주 이전기업 의견조사

1. 조사목적

- 수도권 등 도외에서 제주에 둥지를 튼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동, 기업환경, 행·재정적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관심도 제고

2.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2. 10. 29 ~ 2012. 11. 2(5일간)
- 조사대상 : 이전기업 중 이전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기업 35개사
- 수도권 이전기업, 과기단지 지원시설 입주기업
- 조사내용 : 제주이전 후 기업활동, 기업환경, 지원제도 등에 대한 의견조사
- 조사방법 : 기업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3. 조사결과

1) 제주 이전기업에 대한 CEO 등 중간간부 이상 의견조사

가. 인구통계적 특성

- 전체 응답자 38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함
- 제주 이전기업 48개사 가운데, 이전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기업 35개사

(이전기업 8개, 콜센터 6개, 연수원 1개, 첨단과학단지 20개사)를 대상으로 유효표본을 확보하였음

-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2명(84.2%), 여성 6명(15.8%)으로 나타남
- 직책별로는 CEO는 8명(21.1%), 중간간부이상 29명(76.3%)으로 나타남
- 근무경력은 1년 미만 2명(5.3%), 1년 이상 ~ 3년 미만 5명(13.27%), 3년 이상 ~ 5년 미만 6명(15.8%), 5년 이상 ~ 10년 미만 11명(28.9%), 10년 이상 ~ 20년 미만 8명(21.1%), 20년 이상 6명(15.8%)으로 나타남

<표 IV-1>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32	84.2
	여성	6	15.8
직책	CEO	8	21.1
	중간간부 이상	29	76.3
근무경력	1년 미만	2	5.3
	1년이상~3년미만	5	13.2
	3년이상~5년미만	6	15.8
	5년이상~10년미만	11	28.9
	10년이상~20년미만	8	21.1
	20년이상	6	15.8
합 계		3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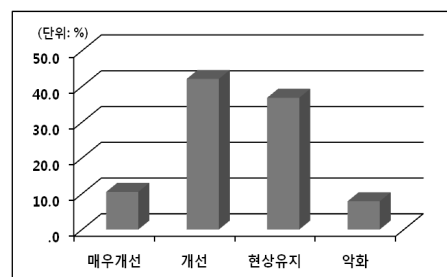
나. 기업활동 관련

(1) 제주이전 후 사업성과에 대한 전체적 변화

- 제주이전 후 사업성과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에 대해 매우개선 10.5%, 개선 42.1%, 현상유지 36.8%, 악화 7.9% 순으로 응답,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 사업성과의 전체적 변화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개선	4	10.5
개선	16	42.1
현상유지	14	36.8
악화	3	7.9
합계	3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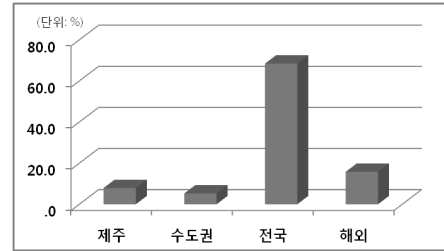


(2) 판매시장 주요 지역

- 기업의 판매시장에 대한 주요지역에 대해선 제주 7.9%, 수도권 지역 5.3%, 전국 68.4%, 해외 15.8%로 응답하여 제주 이전기업들이 특정 지역보다 전국에 판매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 판매시장 주요 지역

구분	빈도(명)	비율(%)
제주	3	7.9
수도권지역	2	5.3
전국	26	68.4
해외	6	15.8
합계	37	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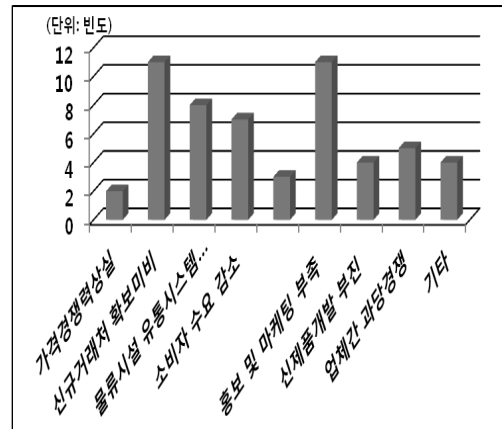


(3) 제품판매 어려움의 주된 이유(복수 응답)

- 제품판매에 어려운 주된 이유에 대해선 신규거래처 확보 미비 및 홍보 마케팅 부족이 2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물류시설 유통시스템 미비 14.5%, 소비자 수요 감소 12.7%, 업체간 과당경쟁 9.1% 순으로 나타남

<표 IV-4> 제품판매 어려움 주된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가격경쟁력상실	2	3.6
신규거래처 확보 미비	11	20.0
물류시설 유통시스템 미비	8	14.5
소비자 수요 감소	7	12.7
기존거래처의 주문감소	3	5.5
홍보 및 마케팅 부족	11	20.0
신제품개발 부진	4	7.3
업체간 과당경쟁	5	9.1
기타	4	7.3
합계	5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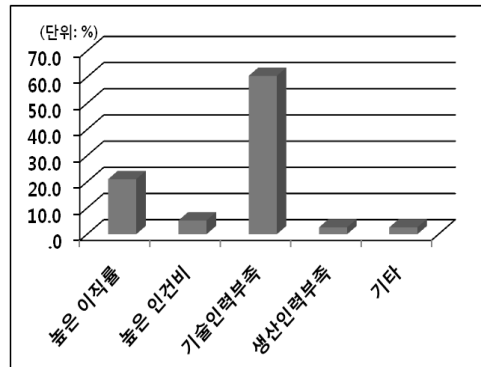


(4) 인력수급 어려움의 원인

- 인력수급 어려움의 원인은 지역 내 전문기술인력 부족이 60.5%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이직률 21.1%, 높은 인건비 5.3%순으로 나타남

<표 IV-5> 인력수급 어려움의 원인

구분	빈도 (명)	비율 (%)
높은 이직율	8	21.1
높은 인건비	2	5.3
지역 내 전문기술인력 부족	23	60.5
현장 생산인력 부족	1	2.6
기타	1	2.6
합계	37	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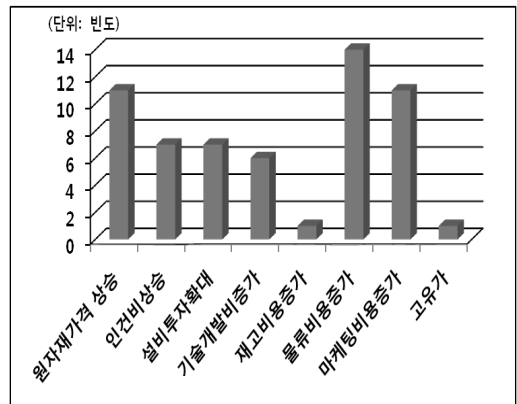


(5) 제품원가 어려움의 원인(복수 응답)

- 최근 원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물류비용 증가 23.3%로 가장 많았고, 마케팅비용 증가 18.3%, 인건비상승 및 신규설비투자 확대가 각각 11.7%, 기술개발비 증가 10.0% 순으로 나타남

<표 IV-6> 제품 원가상의 어려움 원인

구분	빈도 (명)	비율 (%)
원자재가격 상승	1	18.3
인건비 상승	7	11.7
신규설비투자 확대	7	11.7
기술개발비 증가	6	10.0
재료비용 증가	1	1.7
물류비용 증가	14	23.3
마케팅비용 증가	11	18.3
고유가	1	1.7
기타	2	3.3
합계	6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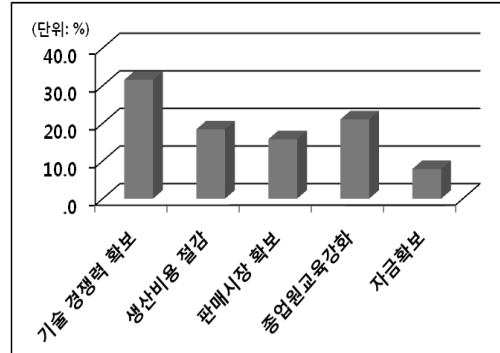


(6)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 부분

-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항에 대해선 기술경쟁력 확보가 3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종업원 교육강화 21.1%, 생산비용 절감 18.4%, 판매시장(내수/수출)확보 15.8%, 자금확보 7.9% 순으로 나타남

<표 IV-7> 경쟁력 증가를 위한
중요부분

구분	빈도 (명)	비율 (%)
기술 경쟁력 확보	12	31.6
생산비용 절감	7	18.4
판매시장(내수/수출)확보	6	15.8
종업원 교육강화	8	21.1
자금확보	3	7.9
합계	37	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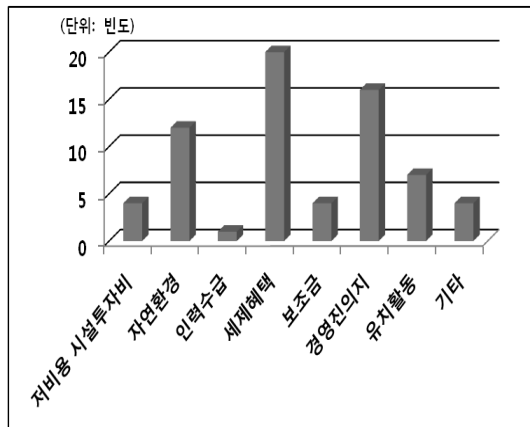
다. 기업환경 관련

(1) 제주 이전 이유(복수응답)

- 현재 지역에 이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선 조세감면 등 세제 혜택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영진 의지 및 경영철학이 23.5%, 자연환경 17.6), 도의 유치활동 10.3%, 저비용 시설투자비 5.9% 순으로 나타남

<표 IV-8> 제주 이전 이유

구분	빈도 (명)	비율 (%)
저비용 시설투자비	4	5.9
자연환경	12	17.6
생활편리	-	-
인력수급	1	1.5
조세감면 등 세제혜택	20	29.4
보조금	4	5.9
경영진 의지 및 경영철학	16	23.5
도의 유치활동	7	10.3
기타	4	5.9
합계	68	100



(2) 입지여건 만족도

〈표 IV-9〉 입지여건 만족도

구 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명	%	명	%	명	%	명	%	명	%
대중교통환경	14	36.8	11	28.9	9	23.7	3	7.9	1	2.6
교통(물류)형편	6	15.8	21	55.3	5	13.2	3	7.9	2	5.3
자연환경	-	-	-	-	4	10.5	12	31.6	22	57.9
원료조달	4	10.5	10	26.3	19	50.0	4	10.5	-	-
인력수급	5	13.2	24	63.2	6	15.8	3	7.9	-	-
생활편리	3	7.9	8	21.1	15	39.5	11	28.9	1	2.6
조세감면	1	2.6	2	5.3	17	44.7	12	31.6	6	15.8
보조금	1	2.6	5	13.2	14	36.8	15	39.5	3	7.9
담당공무원 친절	1	2.6	2	5.3	12	31.6	12	31.6	11	28.9
이웃주민 친근감	1	2.6	4	10.5	19	50.0	13	34.2	1	2.6
교육환경	1	2.6	3	7.9	22	57.9	10	26.3	2	5.3
주변청결상태	-	-	1	2.6	10	26.3	21	55.3	6	15.8

- 입지여건에 대한 현재의 만족도에서는 만족 응답(만족과 매우만족 응답 빈도)이 많은 항목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담당공무원 친절 33, 조세감면 및 보조금이 각각 18, 이웃주민 친근감 14, 생활편리 12 순으로 나타남. 반면, 불만족 응답(불만족과 매우불만족 응답 빈도)이 많은 항목으로 인력수급 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통(물류)형편이 27, 대중교통환경 25, 원료조달 14 순으로 나타남
- 입지여건 대한 만족도를 5점 리커트(Likert)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표 3〉와 같음(1: 매우불만족 2: 불만족,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만족)
 - 조사 기업의 입지여건에 대한 문항중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4.47 점으로 매우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타남
 - 또한 조세감면, 보조금, 담당공무원 친절, 이웃주민 친근감, 교육환경, 주변청결상태 등도 3점 이상의 긍정적 결과가 나타남
 - 반면, 대중교통환경, 교통(물류)형편, 원료조달, 인력수급, 생활편리에 대한 만족도는 3점미만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

<표 IV-10> 입지여건 만족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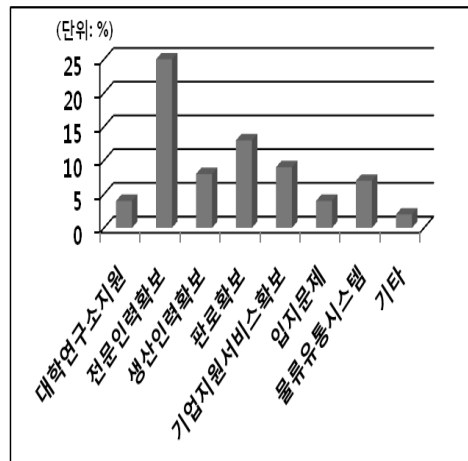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대중교통환경	2.11	1.085
교통(물류)형편	2.24	1.076
자연환경	4.47	0.687
원료조달	2.55	0.921
인력수급	2.18	0.766
생활편리	2.97	0.972
조세감면	3.53	0.922
보조금	3.37	0.913
담당공무원 친절	3.79	1.018
이웃주민 친근감	3.24	0.786
교육환경	3.24	0.786
주변청결상태	3.84	0.718

(3) 기업경영의 중요부분(복수 응답)

○ 현재 기업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고급 전문 인력 확보가 34.7%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판로 확보가 18.1%, 기업지원서비스 확보(마케팅, 컨설팅, 법률, 회계 등) 12.5%, 현장 생산인력 확보 11.1%, 물류 및 유통 시스템 9.7% 순으로 나타남

<표 IV-11> 기업경영의 중요부분

구분	빈도 (명)	비율 (%)
대학, 연구소 등의 지원	4	5.6
고급 전문인력 확보	25	34.7
현장 생산인력 확보	8	11.1
판로 확보	13	18.1
기업지원서비스 확보(마케팅, 컨설팅, 법률, 회계 등)	9	12.5
입지문제(높은분양가, 용지확보등)	4	5.6
물류 및 유통 시스템	7	9.7
기타	2	2.8
합계	7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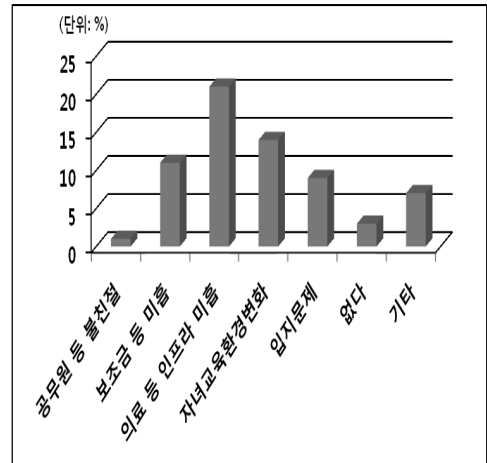


(4) 제주 이전결정 전 고민 사항(복수 응답)

- 제주로 이전결정 전 가장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선 의료, 문화, 쇼핑, 교통 등 인프라 미흡이 31.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녀 교육 환경의 변화 21.2%, 보조금 등 기업지원제도 미흡 16.7%, 입지문제 (높은 분양가, 용지확보 어려움) 13.6% 순으로 나타남

<표 IV-12> 제주 이전결정 전 고민 사항

구분	빈도 (명)	비율 (%)
공무원 및 제주도민의 불친절	1	1.5
보조금 등 기업지원제도 미흡	11	16.7
의료, 문화, 쇼핑, 교통 등 인프라 미흡	21	31.8
자녀 교육환경의 변화	14	21.2
입지문제(높은분양가, 용지확보 어려움)	9	13.6
없다	3	4.5
기타	7	10.6
합계	6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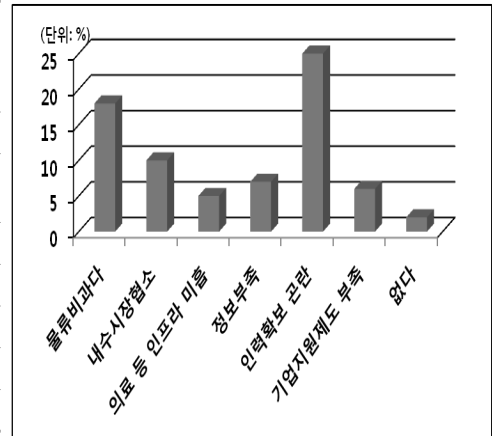


(5) 제주에서의 기업 경영 시 타시도 비교시의 약점(복수 응답)

- 제주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타시도와 비교,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인력확보 곤란이 3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섬이라는 특성상 물류비 과다 24.7%, 내수시장의 협소 13.7%, 정보 부족 9.6%, 기업지원제도 부족 8.2%, 교육,의료,문화,쇼핑,교통 등 인프라 미흡 6.8% 순으로 나타남

<표 IV-13> 타시도 비교 약점사항

구분	빈도 (명)	비율 (%)
섬이라는 특성상 물류비 과다	18	24.7
내수시장의 협소	10	13.7
교육,의료,문화,쇼핑,교통 등 인프라 미흡	5	6.8
정보 부족	7	9.6
인력확보 곤란	25	34.2
기업지원제도 부족	6	8.2
없다	2	2.7
합계	7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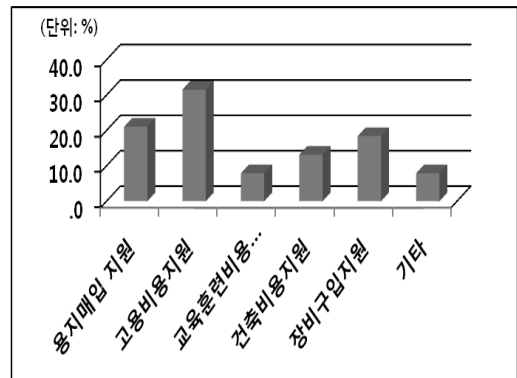
라. 기업지원 제도 관련

(1) 행정상 우선적 지원사항

- 기업이 제주이전 시 행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고용비용 지원이 3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용지매입 지원 21.1%, 시설장비구입비용 지원 18.4%, 건축비용 지원 13.2%, 교육 훈련비용 지원 7.9%순으로 나타남

<표 IV-14> 행정상 우선적 지원 사항

구분	빈도 (명)	비율 (%)
용지매입 지원	8	21.1
고용비용 지원	12	31.6
교육훈련비용 지원	3	7.9
건축비용 지원	5	13.2
시설장비구입비용 지원	7	18.4
기타	3	7.9
합계	37	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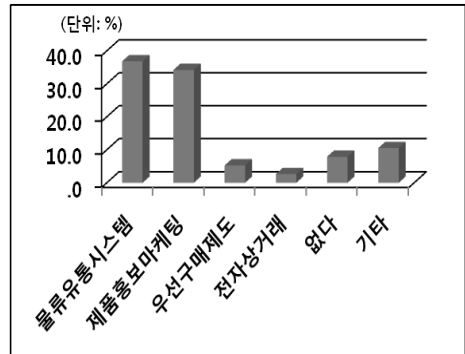


(2) 제품판매 확대 위한 우선적 검토 사항

- 제품판매 확대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에 대해선 물류시설·유통시스템 구축 36.8%, 제품홍보 및 마케팅 지원 34.2%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나타남

<표 IV-15> 제품판매 확대 위한 기관
우선적 검토사항

구분	빈도 (명)	비율 (%)
물류유통시스템 구축	14	36.8
제품홍보 및 마케팅 지원	13	34.2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확대	2	5.3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1	2.6
없다	3	7.9
기타	4	10.5
합계	37	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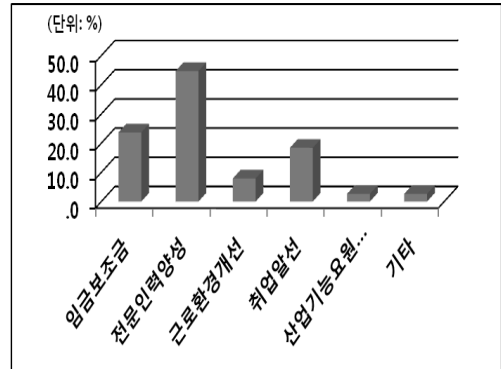


(3) 안정적 인력수급 위한 우선적 지원사항

-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에 대해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확대가 4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금보조금 지원 23.7%, 취업알선 정보제공 18.4%, 근로환경 개선 지원 7.9% 순으로 나타남

<표 IV-16> 안정적 인력수급 위한 기관
우선적 지원사항

구분	빈도 (명)	비율 (%)
임금보조금 지원	9	23.7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확대	17	44.7
근로환경 개선 지원	3	7.9
취업알선 정보제공	7	18.4
산업기능요원 배정확대	1	2.6
기타	1	2.6
합계	37	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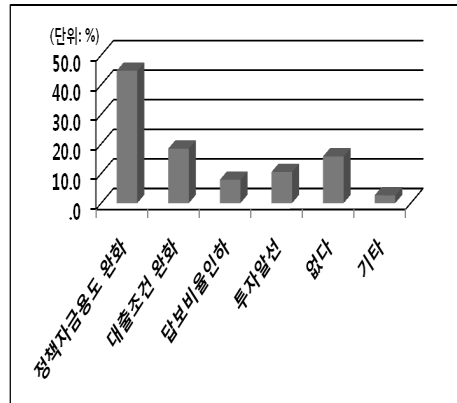


(4) 자금조달 위한 우선적 지원사항

- 자금조달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에 대해선 정책자금 용도제한 완화 44.7%, 대출조건 완화 18.4%, 투자알선 10.5%, 담보비율 인하 및 신용보증 확대 7.9%순으로 나타났으며, 없는 경우에도 15.8%로 나타남

<표 IV-17> 자금조달 위한 우선적 지원사항

구분	빈도 (명)	비율 (%)
정책자금 용도제한 완화	17	44.7
대출조건 완화	7	18.4
담보비율 인하 및 신용보증 확대	3	7.9
투자 알선	4	10.5
없다	6	15.8
기타	1	2.6
합계	37	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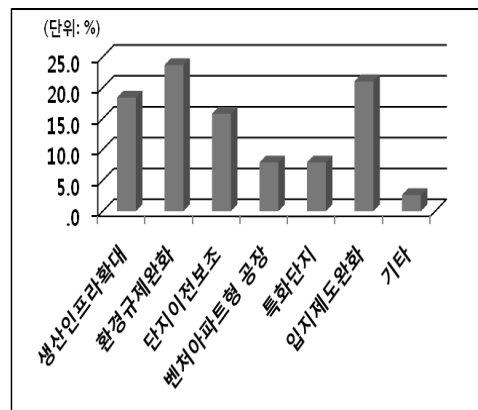


(5) 공장건설 및 사업장 확장시 문제관련, 우선적 지원사항

- 공장건설이나 사업장 확장 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에 대해선 환경관련 규제 완화 23.7%, 입지관련 제도 완화 21.1%, 생산인프라 확대 18.4%, 계획단지이전 보조금 이전 15.8% 등 골고루 나타남. 다음으로 벤처집적시설·아파트형 공장 구축 운영 및 업종별 특화단지 조성이 각각 7.9%로 나타남

<표 IV-18> 공장건설 및 사업장 확장 시 문제관련, 우선적 지원사항

구분	빈도 (명)	비율 (%)
생산인프라 확대	7	18.4
환경관련 규제 완화	9	23.7
단지이전 보조금 지원	6	15.8
벤처집적시설·아파트형 공장 구축 운영	3	7.9
업종별 특화단지 조성	3	7.9
입지관련 제도 완화	8	21.1
기타	1	2.6
합계	37	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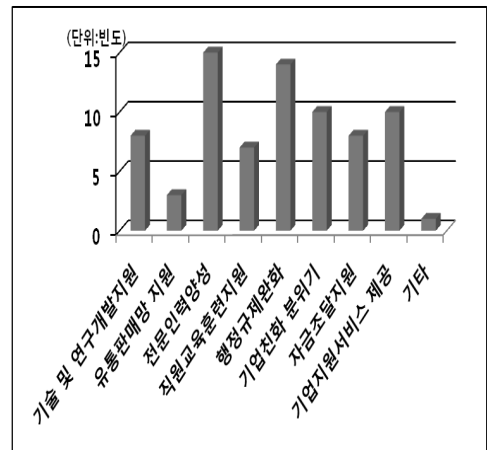
(6) ‘기업하기 좋은 제주’ 되기 위한 우선적 지원사항(복수 응답)

- ‘기업하기 좋은 제주’ 가 되기 위한 제주자치도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에 대해선 전문인력 양성 19.7%, 행정

절차 및 규제완화 18.4%로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나타났으며, 기업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각종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중개기능 강화가 각각 13.2%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및 자금조달 지원이 10.5%, 직원 교육훈련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9.2%로 나타남

<표 IV-19> 기업하기 좋은 제주되기 위한
기관 우선적 지원사항

구분	빈도 (명)	비율 (%)
기술 및 연구개발지원	8	10.5
유통판매망 및 전자상거래지원	3	3.9
전문인력 양성	15	19.7
직원 교육훈련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7	9.2
행정절차 및 규제완화	14	18.4
기업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10	13.2
자금조달 지원	8	10.5
각종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중개기능 강화	10	13.2
없다	-	-
기타	1	1.3
합계	76	100



2) 기업이전으로 제주에 정착한 직원 만족도 조사

(1) 인구통계적 특성

- 전체 응답자 166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함
 - 이전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200부를 배포하여 166개의 유효 표본 확보함
-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99명(59.6%), 여성 57명(34.3%)으로 나타남. 10명(6.0%)은 미응답자임
- 연령대는 20대 51명(30.7%), 30대 82명(49.4%), 40대 22명(13.3%), 50대 이상 7명(4.2%)으로 나타남. 4명(2.4%)은 미응답자임
- 결혼여부는 기혼이 71명(42.8%), 미혼 87명(52.4%), 미응답 8명(4.8%)으로 나타남

- 자녀수는 1명이 24명(14.5%), 2명 25명(15.1%), 3명 7명(4.2%), 없는 경우 94명(56.6%), 미응답 16명(9.6%)으로 나타남
- 주택소유는 자가 28명(16.9%), 전세 31명(18.7%), 월세 62명(37.3%), 기숙사 30명(18.1%), 미응답 15명(9.0%)으로 나타남

<표 IV-20> 인구통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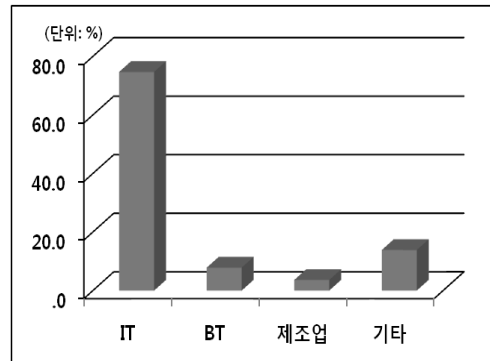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99	59.6
	여성	57	34.3
	무응답	10	6.0
연령	20대	51	30.7
	30대	82	49.4
	40대	22	13.3
	50대 이상	7	4.2
	무응답	4	2.4
결혼여부	기혼	71	42.8
	미혼	87	52.4
	무응답	8	4.8
자녀수	1명	24	14.5
	2명	25	15.1
	3명이상	7	4.2
	없다	94	56.6
	무응답	16	9.6
주택소유	자가	28	16.9
	전세	31	18.7
	월세	62	37.3
	기숙사	30	18.1
	무응답	15	9.0
합계		166	100.0

(2) 종사하는 업체의 업종

- 제주이전 기업체의 종사업종에 대해선 IT업체가 124명(74.7%)로 가장 많았으며, BT업체가 13명(7.8%), 제조업 6명(3.6%), 기타 23명(13.9%)으로 나타남

<표 IV-21> 종사업체의 업종

구분	빈도(명)	비율(%)
IT	124	74.7
BT	13	7.8
제조업	6	3.6
기타	23	13.9
합계	1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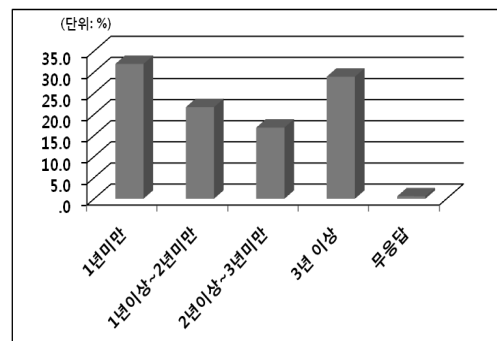


(3) 제주 근무연수

- 제주에서 근무한 연수는 1년 미만이 53명(3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년 이상 48명(28.9%), 1년 이상~2년 미만이 36명(21.7%), 2년 이상~3년 미만 28명(16.9%)순으로 나타남

<표 IV-22> 제주 근무연수

구분	빈도(명)	비율(%)
1년 미만	53	31.9
1년 이상 ~ 2년 미만	36	21.7
2년 이상 ~ 3년 미만	28	16.9
3년 이상	48	28.9
무응답	1	0.6
합계	16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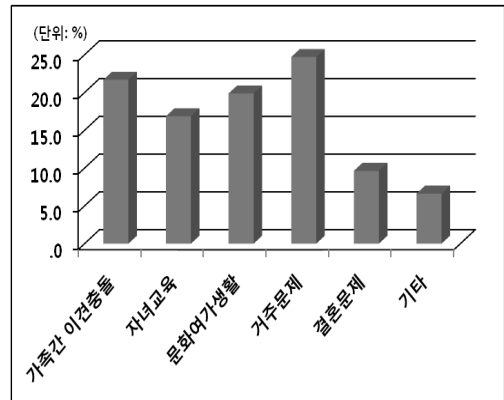


(4) 제주이전 전(前) 고민 사항

- 제주이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직원들이 가장 고민을 했던 사항에 대해 거주문제가 41명(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활권 변경에 대한 가족간 이견충돌이 36명(21.7%), 문화 및 여가생활 33명(19.9%), 자녀 교육 및 의료 문제 28명(16.9%), 결혼문제 16명(9.6%) 순으로 나타남

<표 IV-23> 제주이전 전 고민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생활권 변경에 대한 가족간 이견충돌	36	21.7
자녀 교육 및 의료 문제	28	16.9
문화 및 여가생활	33	19.9
거주문제	41	24.7
결혼문제	16	9.6
기타	12	7.2
합계	16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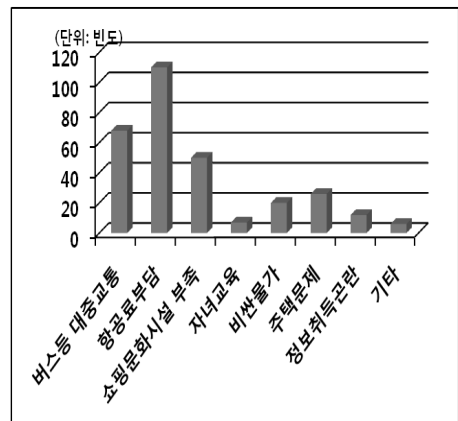


(5) 제주생활의 어려움(복수 응답)

- 제주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을 겪는 사항에 대해 타 지역 왕래에 따른 항공료 부담이 110명(36.8%)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불편 68명(22.7%), 쇼핑시설 및 문화시설 부족 50명(16.7%), 주택문제 26명(8.7%), 비싼 물가 20명(6.7%), 새로운 정보취득의 곤란 12명(4.0%), 자녀교육 7명(2.3%) 순으로 나타남

<표 IV-24> 제주생활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버스 등 대중교통 불편	68	22.7
타 지역 왕래에 따른 항공료 부담	110	36.8
쇼핑·문화시설 부족	50	16.7
자녀교육	7	2.3
비싼 물가	20	6.7
주택 문제	26	8.7
새로운 정보취득의 곤란	12	4.0
기타	6	2.0
합계	29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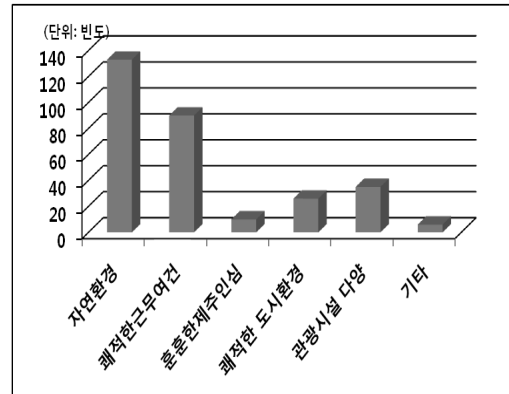


(6) 제주생활의 만족사항(복수 응답)

- 제주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만족하는 사항으로 오름, 바다 등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이 133명(44.3%)로 가장 많았고, 쾌적한 근무여건 90명(30.0%), 관광시설의 다양 35명(11.7%), 쾌적한 도시환경(정주여건 등) 26명(8.7%), 훈훈한 제주 인심 10명(3.3%)순으로 나타남

〈표 IV -25〉 제주생활의 만족사항

구분	빈도 (명)	비율 (%)
오름, 바다 등 자연환경	133	44.3
쾌적한 근무여건	90	30.0
훈훈한 제주 인심	10	3.3
쾌적한 도시환경(정주여건 등)	26	8.7
관광시설의 다양	35	11.7
기타	6	2.0
합계	300	100



4. 시사점

- 제주 이전기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통해 이전기업 영업활동의 활성화 및 기업유치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입지여건 만족도에서 인력수급, 원료조달, 대중교통환경, 물류환경 등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부단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됨
- 행정상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은 고용비용 지원, 물류시설유통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확대, 정책자금 용도제한 완화, 환경관련 규제 완화 등을 꼽을 수 있음
 - 특히 고급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발굴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풀이됨
 - 직원만족도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타 지역 왕래에 따른 항공료 부담 및 버스 등 대중교통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남. 항공료의 부담

을 해소하기 위해 도민할인에 준하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항공사와의 절충노력이 필요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 불편해소에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됨

- 둘째, 제주로 기업을 이전할 때 의료, 문화, 쇼핑, 교통 등 인프라 부족을 가장 많이 고민했고, 제주이전을 결정하게 된 중요 이유로 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꼽고 있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및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풀이됨
- 공장건설이나 사업장 확장 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관련 규제 완화, 입지관련 제도 완화, 생산인프라 확대, 계획단지이전 보조금 지원, 벤처집적시설·아파트형 공장 구축 운영 및 업종별 특화단지 조성 등 행정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하기 좋은 제주’가 되기 위해 제주자치도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전문인력 양성, 행정절차 및 규제완화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기업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각종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중개기능 강화,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및 자금조달 지원, 직원 교육훈련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분석 및 조사 요약

- 본 연구는 지역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성화가 절대 필수적인 사안임을 전제로 제주 이전기업들이 그동안 얼마만큼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냈는지와 이전기업들이 제주의 기업환경 및 지원제도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음
- 첫째, 이전기업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분석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소비지출, 영업지출, 투자계획서에 따른 건설비용을 산업연관분석표에 따라 재분류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임금 소비지출(급여의 50%를 지출한 시나리오 1)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406억 원, 부가가치유발 234억 원, 고용유발 608명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영업비용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368억 원, 부가가치유발 248억 원, 고용유발 364명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건설비용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663억 원, 부가가치유발 331억 원, 고용유발 896명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V -1〉 제주 이전기업 8개사가 2011년까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총합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소비지출	시나리오1	406억 원	234억 원	608명
	시나리오2	571억 원	324억 원	848명
영업활동		368억 원	248억 원	364명
건설		663억 원	331억 원	896명
전체	시나리오1	1,437억 원	813억 원	1,868명
	시나리오2	1,602억 원	903억 원	2,108명
기업 1개사 당	시나리오1	179억 원	102억 원	233명
	시나리오2	200억 원	113억 원	263명

주1) 본 연구에서 소비지출 파급효과 분석결과중 시나리오 1은 급여의 50%를 소비지출했다고 전제하고 분석한 것이고, 시나리오 2는 급여의 70%를 소비지출했다고 전제하고 분석한 것임

주2) 분석대상이 아니었어도 투자계획서상 건설비용 지출이 있는 기업체들의 파급효과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는 1,247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62억 원, 고용유발효과 1,255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이전기업의 건설효과는 대폭 증대될 것임

- 종합적으로 기업유치에 따라 분석대상 8개사가 2011년까지 직원임금 소비지출, 영업비용지출, 건설투자 증대에 따른 전체적인 효과(시나리오 1)는 총생산유발효과 1,437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12억 원, 고용유발효과 1,868명임
 - 시나리오 2의 경우, 총생산유발효과 1,602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903억 원, 고용유발효과 2,108명임
- 기업 1개사당 평균 지역경제 파급효과(시나리오 1)는 생산유발효과 17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2억 원, 고용 233명인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 2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2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13억 원, 고용 263명인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제주 이전기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통해 이전기업 영업활동의 활성화 및 기업유치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먼저, 입지여건 만족도에서 인력수급, 원료조달, 대중교통환경, 물류환경 등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단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됨
- 행정상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은 고용비용 지원, 물류시설유통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확대, 정책자금 용도제한 완화, 환경관련 규제 완화 등을 꼽을 수 있음
 - 특히 고급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발굴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풀이됨
 - 직원만족도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타 지역 왕래에 따른 항공료 부담 및 버스 등 대중교통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나 항공료 부담해소 대책 및 대중교통 불편해소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됨
- 그 다음, 제주로 기업을 이전할 때 의료, 문화, 쇼핑, 교통 등 인프라 부족을 가장 많이 고민했고, 제주이전을 결정하게 된 중요 이유로 조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꼽고 있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주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및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풀이됨

- 공장건설이나 사업장 확장 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 관련 규제 완화, 입지관련 제도 완화, 생산인프라 확대, 계획단지이전 보조금 지원, 벤처집적시설·아파트형 공장 구축 운영 및 업종별 특화 단지 조성 등 행정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하기 좋은 제주’가 되기 위해 제주자치도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전문인력 양성, 행정절차 및 규제완화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기업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각종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중개기능 강화, 기술 및 연구개발지원 및 자금조달 지원, 직원 교육훈련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제2절 이전기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

1. 이전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측면

1) 애로사항 청취 후 맞춤형 지원 필요

- 이전기업의 종업원, 자본, 핵심 업무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기업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안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을 가지고 있음
- 콜센터의 경우 20대에서 40대까지의 여성인력 250명이 근무하고 있어 이들 여성인력들의 애로사항은 매우 특수한 것임
 - 이들 여성인력에게 육아 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사내 어린이집 설립에 지원을 해주는 식의 노력이 필요함
- 첨단과학단지의 경우 버스노선이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배차간격이 넓어 불편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2) 인력 수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 이전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제주지역에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확보기반 조성이 시급함

- 지역 내 생산 및 기계시설관리 인력 부족
- 지역의 대학 및 폴리텍대학, 지역 테크노파크, 기술혁신센터 등의 관련기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투입 가능한 기술 인력에 필요한 기초교육 필요
- 대학과 기업체간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취업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며, 선진국형 도제(徒弟)제도의 본격 도입 및 실시
 - 대학과 기업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 임원진이 직접 교육하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하고, 기업에 지원되는 교육훈련비를 활용하여 지역 내 대학생에게 장학금지원 및 졸업 후 채용 등 동기유발 필요
- 행정은 지역 내 대학 당국자간 협의체 구성 및 역할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인력공급시스템 구축 필요

3) 판로 확보 지원정책 구사

- 섬이라는 특성상 물류비가 과다하게 드는 물류환경을 극복하고, 소비처에 떨어진 기업의 마케팅 측면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홍보활동 및 판매촉진 강화가 필요
- 이전기업 제품의 전국시장으로의 확대를 위한 유통망 구축 및 판로개척을 지원함
 - ㉠공동마케팅 활동 강화, ㉡공동물류시스템 구축, ㉢지역특산품 전시 판매장의 기능 강화, ㉣유사 브랜드간 통합 및 공동브랜드 활성화,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유통업체와의 연계 전략 구사

4)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R&D 사업비 제공방안 강구

- 지역별, 업종별, 산업별로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주지역 중소기업간 경제현안에 대한 대화와 정보교류의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우수 이업종 교류를 장려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 공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이업종 교류 확산을 도모함
-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위기극복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바이어의 숙소문제 해결 및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바이어하우스 운영 필요
 -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Seoul Partners House, 객실 9개, 대회의장, 세미나룸과 테라스라운지) 벤치마킹
 -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바이어 접견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자 제주를 찾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공간화
 -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주상공회의소 등의 위탁운영 검토
- 특히 제주이전 기업들이 R&D동반 제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필요
 - 특별법 개정 시 R&D사업비 확보 및 제공방안 강구 필요하고, 행정과 협력하여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 R&D사업비 지속적 확보 노력 강화

5)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 기업들의 산업단지 입주 시, 공장 증설, 사업장 주소 이전 등 다양한 행정절차가 이뤄지는데, 이에 따른 절차 및 규제 때문에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각종 규제의 완화 검토
- 예를 들어, 산업단지 내 입지 분양과 관련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수요자 위주에서 분양 절차 검토
 - 토지분양계획을 수립할 때 공급자 위주 일방적으로 방향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제주에 이전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에 한해 수요자 희망사항을 사전에 수렴하여 분양토지 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6) 이전기업 직원들의 불편 해소

- 기업측면에서의 어려움 외에도 제주에 정착한 이전기업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함
- 직원들의 주거문제에서부터 육아, 문화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 항공료 부담해소,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대중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구사 필요(<부록 3> 참조)

- 정기적으로 이전기업 및 직원들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개선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유치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전담공무원제 운영하여 기업의 위기사항 파악 및 조치 가능한 지원 필요

7) 피부에 와 닿는 기업사랑 문화 조성

- 기업이 지역에 있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인식아래 기업인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풍토 조성 필요
 - 기업명이나 기업인명을 딴 도로 네이밍 등
- 기업하기 좋은 사회적 정서 유도 및 도민의식 전환 필요

2. 기업유치 활성화 측면

1) 기업유치 전략적 마스터플랜 수립

- 기업유치 비전과 목표,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
- 투자유치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유치활동기간 설정, 기업물색, 기업접촉, 기업유치활동 등 과정별 매뉴얼 구사
- 제주특별자치도 국(局) 단위 기업유치 활동 전개
 - 기업유치 관련 TF팀 가동, 특정 달을 기업유치 달로 지정, 각 국별 관련 기업체 리스트 파악, 접촉, 1건 이상 기업유치 성사
 - 예) 농축산식품국-식품관련 기업, 청정환경국-환경관련 사업체 유치, 수출진흥본부-화장품기업 유치, 지식경제국-IT사업체 유치, 보건복지국-의료 보건관련 기업 유치 등
- 민간참여 기업유치 세일즈팀 구성
 -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하여 투자 및 기업유치 대리자 육성 및 유치 실적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금제 시행 필요
- 이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지원협의회(위원장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구성됨(2012.4)

- 참여기관 : 도(4개부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세무서, 제주세관, LH제주지역본부, 대한무역협회제주사무소, KOTRA제주사무소, 제주상공회의소, JDC

2) 전략·선도·특화 업종 기업 유치 타깃 필요

- 2012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를 재개정하여 현재 전략·선도·특화 업종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전략·선도·특화 업종을 유치할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2% 범위에서 추가 인센티브
- 제주지역에 적합한 업종 및 전략·선도·특화 업종 기업체 탐색하여 유치 전개 필요
 - 지역전략산업 (2개분야 43종) : 바이오산업, IT산업
 - 지역선도산업(3개분야) : 풍력서비스, 차세대식품융합, MICE산업
 - 특화업종(2개분야 11종) : 식료품제조업, 기초의약품질 및 생물학적 제제제조업

3)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 검토

- 제주 이전기업들이 보조금 지원 및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이전 결정을 하게 됐으나, 현재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수도권과 지근거리에 있는 강원도나 충청권이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임
- 수도권 등의 기업을 제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보다 유리한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함
- 비수도권 기업이 제주에 이전하는 것도 기업으로서의 특단의 결정인 만큼, 특별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구 필요함

4) 산업단지 확대 시급

- 제주지역의 경우 산업단지는 국가지정 1개소, 지방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3개소가 전부인 실정임

<표 V-2> 전국 및 제주지역 산업단지 현황

구분	전국 단지 수	전국	제주
국가	40	강원 3개, 전북 7개, 전남11개, 충북 4개	1개(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099,000㎡)
지방 일반산업단지	374	강원18개, 전북 17개 전남28개, 충북 46개	1개 (용암해수단지, 195,000㎡)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부산, 춘천, 청주, 전주, 마산	
농공	401	강원 36개, 전북 46개, 전남 48개, 충북 43개	3개(대정, 구좌, 금능)

-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 인프라라는 인식제고 필요함
 - 포화상태에 도달한 산업단지 부족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
- 현재 분양중인 용암해수산업단지의 경우 19만5천㎡로 규모가 작아 주변 토지 매입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여 용암해수를 활용한 식품, 화장품, 기능성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용지규모 등이 구미에 맞게 입주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80만㎡ 녹색산업단지를 2014년에 완공할 예정이나 산업단지 조성이 최소 2~3년은 소요되는 만큼 추가 단지조성계획을 검토해나가야 하고, 장기적으로 적정규모의 산업단지조성계획 마련 필요
 - 산업단지 확대 공급도 없이 이전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기존 공급자 중심 산업단지 지정 개발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해야 함. 다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과 주거 생산, 연구, 정보, 업무, 유통 기능까지 겸비한 복합적 혁신공간으로 산업입지 수급 다양화를 모색해야 함

- 현재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가 이원화됨으로써 입주기업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입주기업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주체의 일원화 필요함
- 용암해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타 지역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세제혜택 제공 검토 필요

5) 아파트형 공장 건립

- 기업이 한꺼번에 타시도로 이전하는 것은 위험(risk)가 매우 커서 단계적 이전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함
- 단계적 이전을 위해서는 벤처공장, 아파트형공장(벤처공장, R&D연구소, 지식산업센터)를 세워 입주를 유도
 - 아파트형공장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및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3층 이상,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
- 경기도 부천 등에 시설된 아파트형 공장 벤치마킹 필요
 - 부천시는 중소기업들의 생산환경 개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종 생산 기반시설과 창고 등 물류시설을 갖춘 아파트형 공장을 입지환경 개선차원에서 건립 운영하고 있음

참고문헌

- 고성보(2004),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주발전연구원』.
- 고태호(2011), 제주특별자치도 연수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제주발전연구원』.
- 구교준·조광래(2008), 수도권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 정책의 파급효과 비교 분석.
- 권태현(2004), SAS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 『도서출판 청람』.
- 이춘근(2006), 지역산업연관분석론, 『학문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009), 정책기관 등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한국은행(2007), 산업연관분석해설.
- 한국은행(2009),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 한승철(2011), 제주 중소기업 지속성장 전략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한승철(2008),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 전략, JDI FOCUS.
- 호남지방통계청(2012), 2005년 이후 호남권 지역내총생산 추이.

부 록

■ 부록 1

〈부록 1-1〉. 고용실적이 없거나 이전한지 1년이 안되어 단일분석이 불가능한 이전기업 현황

기업명	업종	유치시기	고용계획	고용실적	투자액	매출액
(주)이스트소프트	“	2010	50	0	111	331
(주)아인스S&C	“	2010	32	0	15	62
(주)우성진공	기계펌프	2010	48	0	72	55
(주)선광ITI	낙뢰보호	2010	40	0	46	60
(주)모뉴엘	PC, 로봇	2011	227	0	431	4,605
(주)온코퍼레이션	TV	2011	56	0	242	1,822
(주)미락	육류가공	2012	45	7(4)	5	-

〈부록 1-2〉 신규 시설임대기업이거나 본사가 아닌 이유로 지역자료가 없는 이전기업 현황

구분	기업명	업종	유치시기	고용	투자액 (억 원)	매출액
이전 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	인터넷포털	2006	255	125	
	(주)NXC	게임	2009	48	170	
시설 임대	(주)신시웨이 등 첨단과학단지 시설임대 20개사					
콜센터	(주)TM파워	“	2010	8(6)	3	-
	(주)동부화재제주센터	“	2010	42(40)	3	-
	(주)KT모바일고객센터	“	2011	167(157)	12	-
	(주)이노텍스	“	2012	-	-	-
연수원 유치	농협중앙회 연수원	“	2009	-	350	연 50천 명
	비알 뇌교육 연수원	“	2009	-	650	연 40천 명
	방송대학교 연수원	“	2009	-	62	연 30천 명
	KAIST 연수원	“	2009	-	60	-
	(주)블랙약크	“	2012	-	200	-
	충북교육청	“	2012	-	97	-

■ 부록 2

ID□□□

제주 이전기업에 대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제주 이전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이전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고견은 이전기업의 경영활동을 돕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답변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제주발전을 위해 동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 근 민

제주발전연구원장 양 영 오

본 설문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 :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한 승 철 박사(☎ 726-6213)

☐ 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직책	① CEO	② 간부(중간간부 이상)
근무 경력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CEO 등 중간간부 이상 의견조사

I. 기업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사가 제주이전 후 사업성과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개선 ② 개선 ③ 현상유지 ④ 악화

2. 귀사의 판매시장은 주로 어디인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제주 ② 수도권 지역 ③ 전국 ④ 해외

3. 귀사가 제품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2개지만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가격경쟁력 상실 | ② 신규거래처 확보 미비 |
| ③ 물류시설 유통시스템 미비 | ④ 소비자 수요 감소 |
| ⑤ 기존거래처의 주문감소 | ⑥ 홍보 및 마케팅 부족 |
| ⑦ 신제품개발 부진 | ⑧ 업체간 과당경쟁 |
| ⑨ 기타(기술하여 주십시오:) | |

4. 귀사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높은 이직률 | ② 높은 인건비 |
| ③ 지역 내 전문기술인력 부족 | ④ 현장 생산인력 부족 |
| ⑤ 기타(기술하여 주십시오:) | |

5. 귀사가 최근 원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2개지만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① 원자재가격 상승 | ② 인건비 상승 | ③ 신규설비투자 확대 |
| ④ 기술개발비 증가 | ⑤ 재고비용 증가 | ⑥ 물류비용 증가 |
| ⑦ 마케팅비용 증가 | ⑧ 고유가 | |
| ⑨ 기타(기술하여 주십시오:) | | |

6. 귀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기술 경쟁력 확보 ② 생산비용 절감
 ③ 판매시장(내수/수출) 확보 ④ 종업원 교육 강화
 ⑤ 자금확보 ⑥ 기타(기술하여 주십시오:)

II. 기업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사가 현재 지역에 이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저비용 시설투자비 ② 자연환경 ③ 생활편리 ④ 인력수급
 ⑤ 조세감면 등 세제혜택 ⑥ 보조금 ⑦ 경영진 의지 및 경영철학
 ⑧ 도의 유치활동 ⑨ 기타(기술하여 주십시오:)

2. 귀사의 입지여건에 대한 현재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① 대중교통환경					
② 교통(물류)형편					
③ 자연환경					
④ 원료조달					
⑤ 인력수급					
⑥ 생활편리					
⑦ 조세감면					
⑧ 보조금					
⑨ 담당공무원 친절					
⑩ 이웃주민 친근감					
⑪ 교육환경					
⑫ 주변청결상태					

① 대학, 연구소 등의 지원 ② 고급 전문인력 확보
③ 현장 생산인력 확보 ④ 판로 확보
⑤ 기업지원서비스 확보(마케팅, 컨설팅, 법률, 회계 등)
⑥ 입지문제(높은 분양가, 용지확보 등) ⑦ 물류 및 유통 시스템
⑧ 기타(기술하여 주십시오:)

① 공무원 및 제주도민의 불친절 ② 보조금 등 기업지원제도 미흡
③ 의료, 문화, 쇼핑, 교통 등 인프라 미흡 ④ 자녀 교육환경의 변화
⑤ 입지문제(높은 분양가, 용지확보 어려움) ⑥ 없다
⑦ 기타(기술하여 주십시오:)

① 섬이라는 특성상 물류비 과다 ② 내수시장의 협소
③ 교육, 의료, 문화, 쇼핑, 교통 등 인프라 미흡 ④ 정보 부족
⑤ 인력확보 곤란 ⑥ 기업지원제도 부족
⑦ 없다 ⑦ 기타(기술하여 주십시오:)

① 용지매입 지원 ② 고용비용 지원
③ 교육훈련비용 지원 ④ 건축비용 지원
⑤ 시설장비구입비용 지원 ⑥ 기타(기술하여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물류시설·유통시스템 구축 ② 제품홍보 및 마케팅 지원
 ③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확대 ④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⑤ 없다 ⑥ 기타(기술하여 주십시오:)

3. 귀사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임금보조금 지원 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확대
 ③ 근로환경 개선 지원 ④ 취업알선 정보제공
 ⑤ 산업기능요원 배정확대 ⑥ 없다
 ⑦ 기타(기술하여 주십시오:)

4. 귀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정책자금 용도제한 완화 ② 대출조건 완화
 ③ 담보비율 인하 및 신용보증 확대 ④ 투자 알선
 ⑤ 없다 ⑥ 기타(기술하여 주십시오:)

5. 공장 건설이나 사업장 확장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생산 인프라 확대 ② 환경관련 규제 완화
 ③ 계획단지이전 보조금 지원 ④ 벤처집적시설·아파트형 공장 구축 운영
 ⑤ 업종별 특화단지 조성 ⑥ 입지관련 제도 완화
 ⑦ 기타(기술하여 주십시오:)

6. ‘기업하기 좋은 제주’가 되기 위해 제주자치도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지 2가지만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기술 및 연구개발지원 ② 유통판매망 및 전자상거래지원
③ 전문인력 양성 ④ 직원 교육훈련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지원
⑤ 행정절차 및 규제 완화 ⑥ 기업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⑦ 자금조달 지원 ⑧ 각종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중개기능 강화
⑨ 없다 ⑩ 기타(기술하여 주십시오:)

7. 제주자치도에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설문조사에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직원용

ID□□□□

제주 이전기업에 대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기업이전으로 제주에 정착한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코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답변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제주발전을 위해 동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답변하
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 근 민

제주발전연구원장 양 영 오

본 설문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 :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한 승 철 박사

(☎ 726-6213)

■ 부록 3

제주에 정착한 이전기업 직원이 제주자치도 및 도민에게 바라는 사항

설문 번호	제주자치도 및 도민에게 바라는 사항
4	제주도민의 혜택이 많아 졌으면
13	유치 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19	타도시 대비 음식점, 병원 등의 직원 서비스가 떨어짐
28	제주 지역만의 특화된 부동산 정책이 필요
39	문화시설, 교육시설 부족
44	놀이공원 시설 확충
45	가스, 기름값의 안정화
46	관광객의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필요
47	도에서 추진한 업무의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이 미흡
48	대중교통 개선
49	대중교통 개선
50	관광물가가 너무 비싸다.
51	물가가 너무 비싸다.
57	항공요금 인하
58	항공요금 인하
59	항공요금 인하
68	주차문제
69	항공요금 인하
74	올바른 운전문화
77	대중교통 개선
117	교육서비스 강화
121	사업 출장자 항공권 우대 정책
122	쇼펍시설
125	항공요금 인하
126	항공요금 인하
127	택배비 인하
130	대중교통 개선
136	대중교통 개선
138	문화시설, 교육시설 부족
149	주차시설 확충
154	관광지 불친절
157	도로시설 해결
158	도로 보수
159	신호등 설치
160	버스노선 확충
161	버스노선 확충
162	버스운전 난폭
163	주차 문제
164	교통문제

■ 부록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4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 소재 기업”이라 함은 기업의 본사(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개인기업인 경우 주된 사업자등록지)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국내복귀기업”이라 함은 내국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 나.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자산 또는 지분 전부를 양도(이하 “전부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 다. 국내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사업장의 최근 2년 평균 상시고용인원 또는 생산물량을 50% 이상 감축(이하 “부분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5.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6.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7. “대기업”이라 함은 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 8.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 9.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10. “유치”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2. “증설”이라 함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도권기업 이전지원”이라 함은 수도권 소재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4. “신·증설기업 지원”이라 함은 비수도권에 제11호 및 제12호를 위해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국내복귀기업 지원”이라 함은 제3호에 의한 국내복귀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6. “보조사업”이라 함은 제13호 내지 제15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입지지원”은 제13호 및 제15호의 기업에 대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설비투자지원”은 제13호 내지 제15호의 기업이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단, 국내복귀기업은 4년 이내)의 기간동안 투자하는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7. “집단화이전”이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8.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19. “수도권 인접지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도권과 인접한 광역시·도의 시·군을

말하며 이중 제18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0. “지원실적 저조지역”이라 함은 제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 예산액(집행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미만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1. “일반지역”이라 함은 제19호 및 제20호에 의한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원실적 저조지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2. “정산일”이라 함은 기업이 보조금지원 신청서상 약속한 투자금액과 신규고용인원의 이행을 전부 완료하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포함한 완료보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한 날을 말한다(단, 최초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국내복귀기업에 한하여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23.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4. “집행잔액”이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한 보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기업 등에 지급한 보조금을 감한 금액을 말한다.
25. “지방투자정보망”이라 함은 지방투자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6. “지역전략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7. “지역선도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8.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함은 별표 6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9. “특화업종”이라 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영(법·영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이 기준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수도권 이전 기업, 지방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단, 유치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수도권기업 이전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다.

1. 투자유치시 별표 1에서 정한 지역에서 이전할 사업을 3년 이상 영위(기업의 사정변경으로 법인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일 것
2. 비수도권으로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 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이하 같다) 또는 연구소를 각각 전부이전하는 경우
3.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③ 신·증설기업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또는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을 투자유치하는 경우
3. 신규투자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4.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인 경우

④ 국내복귀기업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다. 단, 국외 사업장을 이미 전부 철수한 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전부 철수한 경우에만 한다.

1. 국내에서 영위하려는 사업장과 국외에서 영위하였던 사업장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체인 경우 대표자)와 동일할 것 (이 때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2. 국내 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국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경우
 3.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국외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단, 이미 전부 철수한 기업의 경우 전부 철수 절차 개시전 2년간 계속하여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4. 국내복귀 후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있어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 30인 미만인 수도권 기업이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제2항제1호·제3호 및 본사, 공장, 연구소의 전부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역전략산업·지역선도산업, 특화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전부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3.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수도권소재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4.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업이 1억 원 이상 신규 투자하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7조에 의한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선정

하고 지원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자체별 최근년도의 보조금집행액, 설비투자액, 지역의 낙후도, 지역내총생산(GRDP)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 대한 지출한도액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출한도액내에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지출한도액을 추후 재조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 및 별표 3에 의거하여 별지 제1호, 제1-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에 의한 기업유치 투자계획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타당성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지원대상기업의 선정, 지원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지 제4호,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에 따라 해당기업의 투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에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대상기업, 지원금액 등이 부적합하거나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8조(지방투자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지식경제부에 “지방투자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 :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나. 위 원 : 5인 이내(지역투자팀장,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국내복귀기업지원 심의의 경우 해외투자과장을 포함한 6인 이내)

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성격 및 심의결정

가. 성 격 : 심의·의결기관

나. 개 최 : 회의개최 사유 발생시

다. 심의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3. 기 능

가. 제7조에 의한 지원타당성 및 지원금액 심의

나. 제19조에 의한 성과평가

다. 경제여건변화 및 사정변경으로 지원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내용의 심의

라.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의 심의·의결

마. 기타 동 보조금 운영을 위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국내복귀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보조금의 지원

제9조(보조금의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표 4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신·증설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복귀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표 4-1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업유치 투자계획사업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기업유치 투자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동 사업을 평가하여 해당 투자유치계획에 따라 유치된 기업의 투자금액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비율에 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모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에 100분의 5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2. 제19조에 따른 투자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상위 10개 이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제12조(지원한도) ① 이 지원기준에 따른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되, 기업당 최고 6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인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000억 원 이상 투자(별표 4의 주4 투자를 말한다)하여 이전을 완료하면서 협력기업과 동반이전하는 경우
2.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인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000억 원 이상 투자(별표 4의 주4 투자를 말한다)하여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
3.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 예산액(집행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미만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800억 원 이상 투자(별표 4의 주4 투자를 말한다)하여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

4.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 예산액의 100분의 5미만인 지역으로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800억 원 이상 투자(별표 5의 주3 투자를 말한다)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후관리

제13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0일 이내(단, 제8조에 의한 심의기간을 제외한다)에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제7조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의 적정 여부
 5.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전기업, 신·증설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이전기업, 신·증설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보조금 신청액과 교부한 보조금의 미집행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보조금 신청액과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으로 발생한 환수차액 및 이자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당해 지방사업 용도로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⑧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의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제9조제1항의 입지지원을 받은 기업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금액 및 상시 고용인원을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단, 국내복귀기업은 4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입지지원을 받은 기업이 착공전에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동일 시군구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지방이전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은 제9조제1항의 입지지원을 받아 때

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처분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지방이전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은 제9조제1항의 입지지원을 받아 입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사업 이행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9조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은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4년 이내에 국외 사업장을 전부 철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9조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은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4년 이내에 국외 사업장을 부분 철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5조에 의한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매년 11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의해 기업이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 그 처리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

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의해 기업으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5항에 의해 기업으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3. 제14조제6항에 의해 기업으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4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환수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시 : 다음 각 목중 큰 금액

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이하 ‘이자’라 한다)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

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시 : 보조금 전액과 이자

3. 설비투자지원시 : 보조금 전액과 이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4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6항에 의한 환수결정을 내린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미이행시 :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준용하여 환수
2. 제14조제2항 미이행시 :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하되 다음 각 목의 미달율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 다만, 각 목의 미달율이 양의 값인 경우에는 0(零)으로 처리하여 적용

- 가.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율 : $(\text{실투자금액}-\text{투자계획금액})/\text{투자계획금액} \times 100$
- 나.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율 : $(\text{투자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text{계획한 상시고용인원})/\text{계획한 상시고용인원} \times 100$
3. 제14조제3항 미이행시 :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하되 사업 미이행 기간비례에 따라 환수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제14조제4항에 의해 토지를 변경한 경우 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경우 별표 5에 따라 재산정한 보조금(기지원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과 기지원된 보조금을 상계 및 환수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제14조제5항에 의해 토지를 처분한 경우 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경우 별표 5에 따라 재산정한 보조금(기지원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과 기지원된 보조금을 상계 및 환수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제14조제6항에 의해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경우 제1항제2호를 사업 미이행기간 비례에 따라 환수
7. 제14조제7항 미이행시 :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하여 환수
8. 제14조제8항 미이행시 :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하여 환수하되, 다음 각 목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환수
- 가. 계획한 생산물량 감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율 : $(\text{실생산량}-\text{생산계획량})/\text{실생산량} \times 100$
- 나.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감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율 : $(\text{투자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text{계획한 상시고용인원})/\text{투자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 \times 10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6항의 환수결정시 그리고 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 내용과 보조금 환수계획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지원기준의 수립 및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내 에서 지방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세부지원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지원기준 수립시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인센티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동 고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지원기업의 지역경제기여도, 투자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연도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한도액의 1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2년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는 본 고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수도권내 대상지역(제5조 2항 관련)

- ◆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 매립지* 제외)

※ 송도매립지는 인천광역시장의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 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 ◆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은 제외

[별표 2]

입지지원 신청(제6조 4항 관련)

신청요건	신청시기	신청내용
입지계약체결 (분양·매입·임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별표 4, 4-1]에 따른 입지지원액

[별표 3]

설비투자지원 신청(제6조 4항 관련)

신청요건	신청시기	신청내용
투자신고 (건축물 매입·임대는 입주일)	최초 착공신고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별표4, 4-1, 5]에 따른 설비투자 지원액의 100분의 70
투자완료	최초보조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단 국내복귀기업은 4년이내)	[별표 4, 4-1, 5]에 따른 설비투자 지원액의 100분의 30

주1) 지방이전기업의 경우 최초 착공신고일(입주일)은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4]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기준(제9조 1항 관련)

지역 분류	지원 유형	지원범위			지원금액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입지 지원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20%이내	입지투자금액의 40%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70까지
	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 (전략·선도·특화업 종은 7%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 (전략·선도·특화업 종은 9%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10%이내 (전략·선도·특화업 종은 12%이내)	
수도 권 인접 지역	입지 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15%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50까지
	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3%이내 (전략·선도·특화업종 은 5%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 (전략·선도·특화업 종은 7%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 (전략·선도·특화업 종은 9%이내)	
지원 실적 저조 지역	입지 지원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30%이내	입지투자금액의 45%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80까지
	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 (전략·선도·특화업 종은 9%이내)	설비 투자금액의10%이내 (전략·선도·특화업 종은 12%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15%이내 (전략·선도·특화업 종은 17%이내)	

주1) 설비투자 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계획분)이 상시고용인원(보조금 신청서 제출시점)의 120% 이상일 경우 매10% 추가시마다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1%p씩 상향(최대 5%p)

상시고용인원 증가율(%)	추가 지원비율
20이상 ~ 30미만	1%p
30이상 ~ 40미만	2%p
40이상 ~ 50미만	3%p
50이상 ~ 60미만	4%p
60이상	5%p

주2) 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의 경우에는 입지·설비투자 지원비율을 10%p 상향
(단, 수도권 인접지역은 제외)

주3) 입지금액 기준 : 신청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한하며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또는 정상 임대료 단,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해당지방자치단체 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적의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매입하려는 토지가 타사업의 정부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토지 및 건축비 포함하여 산정(단, 기존면적의 3배 이내)

*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 기간 중 5년 이내로 지원하되 최대 2년단위로 설정(현재 가치 환산 할인율 : 3년 만기 국채 이자율)

* 정상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 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시중 금리 : 3년 만기 국채 이자율)

주4) 설비투자금액 기준 :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 완료일(최장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으로 거주용은 제외)의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 건설투자 중 토목건축물 설치비(도로, 항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 전기 등)

*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별표 4-1]

국내복귀기업 지원 기준(제9조 3항 관련)

지역 분류	지원 유형	지원범위			지원금액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입지 지원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20%이내	입지투자금액의 40%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70까지
	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 (전략·선도·특화업 종은 7%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 (전략·선도·특화업 종은 9%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10%이내 (전략·선도·특화업 종은 12%이내)	
수도 권 인접 지역	입지 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15%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50까지
	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3%이내 (전략·선도·특화업종 은 5%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 (전략·선도·특화업 종은 7%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 (전략·선도·특화업 종은 9%이내)	
지원 실적 저조 지역	입지 지원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30%이내	입지투자금액의 45%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80까지
	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 (전략·선도·특화업 종은 9%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10%이내 (전략·선도·특화업 종은 12%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15%이내 (전략·선도·특화업 종은 17%이내)	

주1) 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의 경우에는 입지·설비투자 지원비율을 10%p 상향(단, 수도권 인접지역은 제외)

주2) 입지금액 기준 : 개별 기업당 5억 원 이내에서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또는 정상 임대료

단,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해당지방자치단체 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적의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매입하려는 토지가 타사업의 정부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식 산업센터의 경우 토지 및 건축비 포함하여 산정

*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 기간 중 7년 이내로 지원하되 최대 2년단위로 설정(현재 가치 환산 할인율 : 3년 만기 국채 이자율)

- * 정상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 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시중 금리 : 3년 만기 국채 이자율)

주3) 설비투자금액 기준 :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 완료일(최장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 *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으로 거주용은 제외)의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 건설투자 중 토목건축물 설치비(도로, 항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 전기 등)
 *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별표 5]

신·증설 기업 지원기준(제9조 2항 관련)

지역 분류	지원 유형	지원범위		지원금액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설비투 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10%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70까지
수도 권 인접 지역	설비투 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50까지
지원 실적 저조 지역	설비투 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10%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15%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80까지

주1) 설비투자 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계획분)이 상시고용인원(보조금 신청서 제출시점)의 120% 이상일 경우 매10% 추가시마다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1%p씩 상향(최대 5%p)

상시고용인원 증가율(%)	추가 지원비율
20이상 ~ 30미만	1%p
30이상 ~ 40미만	2%p
40이상 ~ 50미만	3%p
50이상 ~ 60미만	4%p
60이상	5%p

주2) 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의 경우에는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10%p 추가(단, 수도권 인접지역은 제외)

주3) 설비투자금액 기준 :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 완료일(최장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으로 거주용은 제외)의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 건설투자 중 토목건축물 설치비(도로, 항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 전기 등)

*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ABSTRACT>**An analysis on the ripple effect of relocation firms in Jeju and strategies to attract more firms to Jeju****Han, Seung-Cheol · Kang, Gi-Chun**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ipple effect of relocation firms in Jeju and to seek for the ways to induce more firms to Jeju. The ripple effect analysis of relocation firms in Jeju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table of inter industry analysis, after consumption expenditure, business expenditure and construction cost were reclassified. Consumer spending and business spending were presented in a profits and losses statement includ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construction cost appeared on investment pl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overall ripple effect of consumption expenditure, business expenditure, construction investment of eight relocation firms in jeju(2004-2011) was calculated as follows. Gross domestic product-induced effect was 1,437 million won, added value-induced effect was 813 billion won, and employment-induced effect was 1868 people. This explains that the average ripple effect per 1 enterprise was 179 million won in terms of production inducement, 102 billion won in terms of added value inducement, and 233 people in terms of employment inducement.

In addition, surveys of enterprise opinion were conducted to attract more firms. As a result of surveys, manpower supply, raw material procurement, public transportation environment, and logistics environment appeared to be unsatisfactory in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location conditions of jeju, which needs to be improved.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incentives for relocation firms and the construction of more

infrastructure to improve life quality for relocation people are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Some policy suggestions to induce more firms to Jeju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n the ripple effect and the surveys of enterprise opinion can be presented; customized support,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manpower supply, sale-securing support, cooperation network, fosterage of the corporate love culture.

Other policy suggestions to relocate more firms to Jeju include drawing up a strategic master plan for the attraction of firms, strengthening incentives and expanding the industrial parks.

Key Word : Relocation firm, Ripple effect, Analysis, Survey, Attracting firm

연구진

연구책임	한 승 철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	---------------

공동연구	강 기 춘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

기본연구 2012-25

제주 이전기업의 파급효과 분석 및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발행인 || 양 영 오

발행일 || 2012년 12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162 제주시 아연로 253

전화 : (064) 726-0500 팩스 : (064) 751-2168

홈페이지 : www.jdi.re.kr

인쇄처 || 하나CNC출판

ISBN : 978-89-6010-293-4 9332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